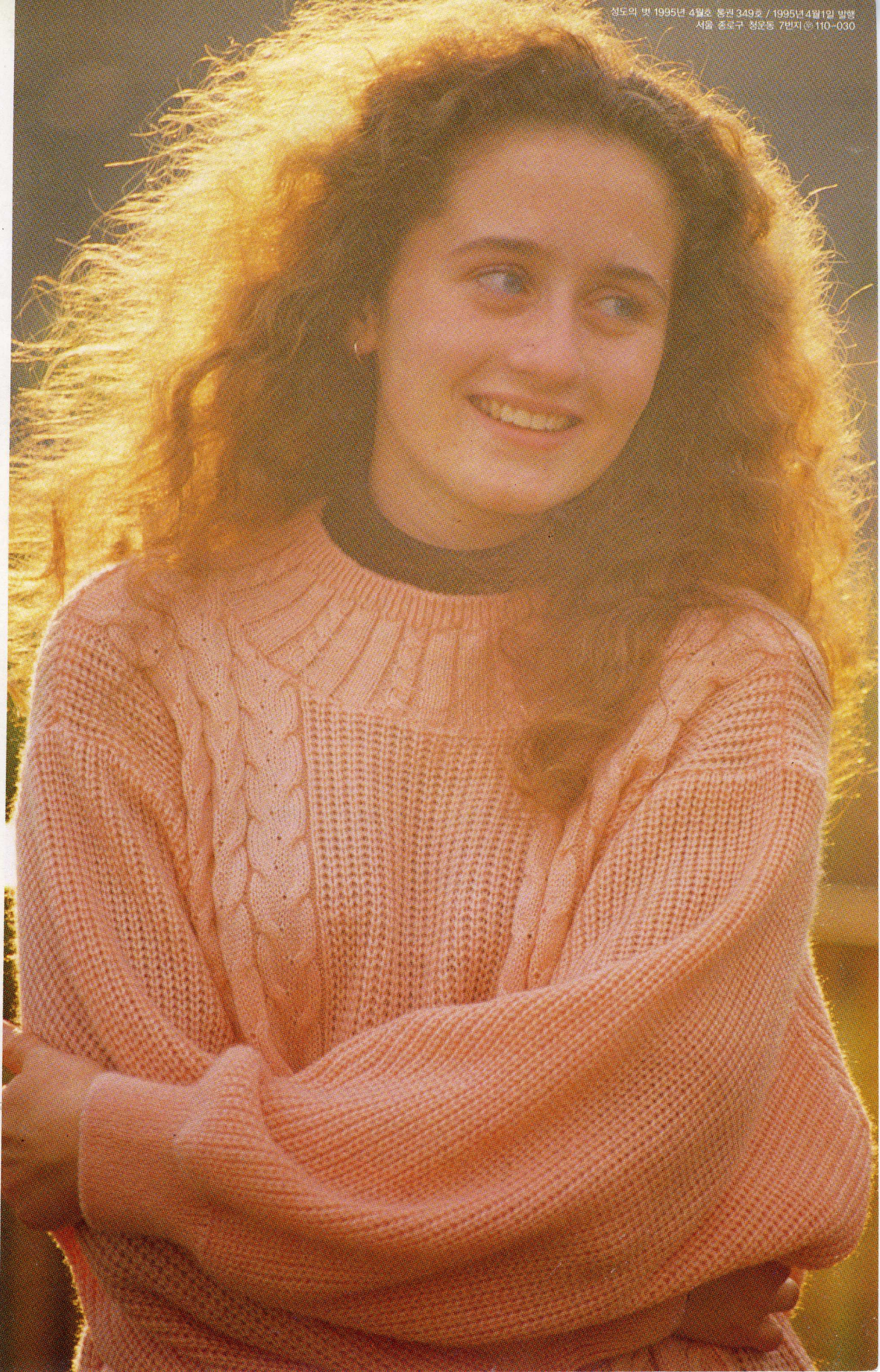


1995
4

영도인의 벗

예수그리스도
교회

본책 부록 : 어린이란





표지 설명

헝가리의 두나이바로스에 사는 16세의 세미나리 학생인 피 마리아는 그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 베러케이 크리스티나가 침례 받은 지 4개월 후에 침례를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이한 것이 아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학생들 전원(뒷 표지)이 최근 개종자들이다. 그리고 그 중 여러 명은 반원들 중 누군가의 소개로 복음을 알게 되어 침례를 받았다. 34쪽의 "다뉴브의 세미나리"를 참조한다.(앞 표지 사진 촬영 : 브라이언 케이 켈리, 뒷 표지 사진 촬영 : 마빈 케이 가드너)

어린이란 표지 설명

병자를 고치시는 거룩하신 주님,
그림 : 해리 앤더슨 @리뷰 엔 헤럴드 :
허가를 받아 게재함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분명한 희망 고트 비 힐클리 부대장관	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알렉산더 비 모리스 장로	10
과거에 집착함 존 비 피쉬.....	18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명예롭게 귀환함 래리 곤트	26
듣는 귀 테드 힌드매쉬	46

청소년란

영원한 포옹 에드워드 판토하스 솔리스	8
더 깊은 상처를 치료함 폴 비 더곳	22
다뉴브의 세미나리 마빈 케이 가드너	34
저는 시도해야 했습니다 데이비드 허생.....	40
독자를 위한 참고 사항	42

정기특별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봉사에서 큰 기쁨을 얻음"	25

어린이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
함께 나누는 시간: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믿습니다	
카렌 로프그림	4
간증은 좋은 느낌을 갖게 해 주어요 브라이언 데일리	6
특별한 증인들	8
이야기:두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콜린 시 히턴	10
노래:황금빛 봄날 버지니아 모간 카메이어와 크로포드 게이츠	13
물문경 이야기:힐라멘의 이천 용사들	14
심심풀이:부활절 바구니 디 에이 우드리프	16

성도는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월 간: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모어, 스웨덴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튀르키예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개 간: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고든 비 힐링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아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빌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올린 에이치 쿡스, 웬 러셀 블라드, 조앤 비 워스라,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럴드, 제프리 알 홀랜드

편집인: 렉스 디 피네가, 조 제이 크리스티슨
 고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콘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니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펠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루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웬 엠 가외시카
 성도의 벗: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디젤
 편집인 보조/아러인: 디앤 쿠키
 스키텔 관리: 메리앤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스코트 디 벡 렌데
 디자이너: 새리 쿡

생산 관리: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제인 앤 피터스
 테니스 커비, 미튜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태프:
 발행 부수 책임자: 토마스 엘 피터스
 배부 부장: 조이스 헨스
 마케팅 부장: 조이스 헨스, 켈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 제 349호, 제 32권, 제 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5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쉰
 편집인: 현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시애틀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시/서편 8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심림인쇄주식회사 김현수
 ©1995년 제 14 번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3 번역 승인-10/93
 April 1995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05884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월간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료는 월간 우편료 1차(일본 등) 12,000원, 2차(필리핀 등) 16,200원, 3차(중동 등) 23,200원, 4차(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

저는 1992년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첫토론 때부터 어떤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론을 계속하면서 저는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복음 원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회원들은 저를 늘 알고 있던 사람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여동생 두 명도 회원이며, 저의 아버지께서는 물론 경을 읽고 계십니다.

저는 몇달째 *리아호나* (스페인어 판)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 때문에 무척 즐겁습니다.

대관장단 메시지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쓰셨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그분의 권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영을 마음속에 지니며, 주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94년 2월호, 4쪽)

그책의 내용들은 참으로 제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성도들에 관한 기사와 그들의 간증은 저 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완다 리베라
 푸에토리코 미야구에 스테이크
 이사벨라 지부

재활동화

저는 약 7 개월 동안 교회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주의깊게 읽기 시작했으며 확신에 찬 총관리 역원의 힘있는 권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모든 분들께 그 책과 경전에 나오는 메시지를 읽고 연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다시 간증이 강해져서 교회에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티노 로드리구스
 우루구아이
 이슬라 파트롤라

충실한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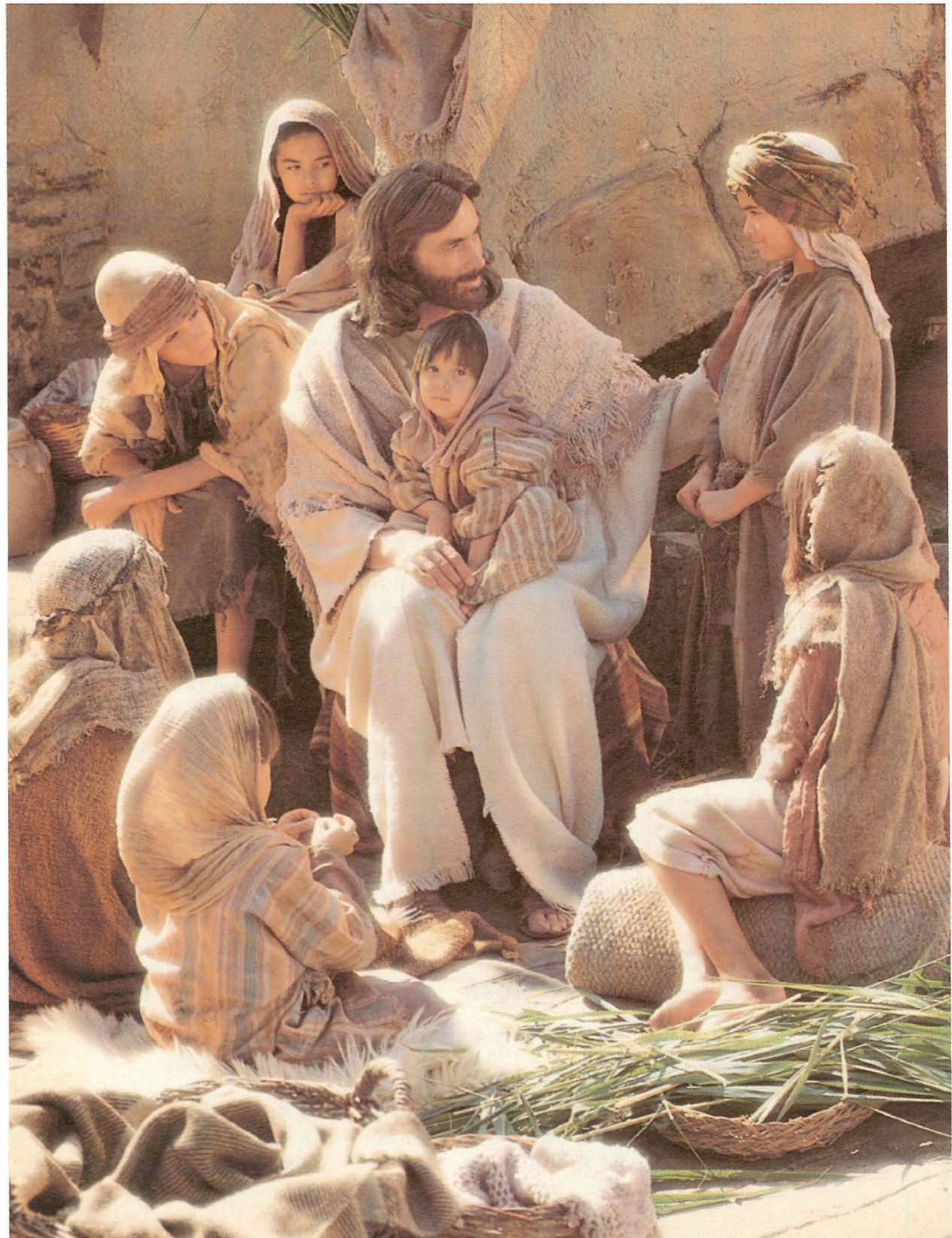
제 친구 아르날도와 저는 둘 다 교회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후 저는 거의 10 년 동안 활동이 저조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르날도는 해마다 저를 위해 *리아호나*(스페인어 판) 구독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보답 받았습니. 저는 다시 활동회원이 되어 부름을 받게 되었으며 성전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아르날도와 *리아호나*에 대해 감사합니다.

알베르토 테아다 차콘
 페루 중부 아레퀴파 스테이크
 헌터 워드

복음을 중심으로

저는 서른 살로서 이 년 전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 때문에 제 인생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투치생*(중국어 판)을 통해 얻은 간증은 제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 자신의 간증을 나눠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느곡 라우
 홍콩 코올룬 북 스테이크
 샴 수이 워드



분명한 희망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는 부활절을 떠올리며 우리 구세주의 겿세마네에서의 고통과 십자가에 못박히심 및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아리조나 성전을 완전히 개축한 후에 열렸던 일반 공개 모임에서 경험한 일이 기억납니다. 약 2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 내부를 관람했습니다. 일반 공개 모임 첫날에는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귀빈으로 초대되었는데, 수 백명이 이에 응했습니다. 구경이 끝난 뒤 저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떠한 질문에도 기꺼이 응답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신교의 성직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인은 이 건물을 다 둘러보았는데, 이 성전의 바깥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써어 있었지만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이 교회의 건물을 본 일이 있지만, 역시 십자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탄생과 성역과 사망과
부활 등의 사건이 언급된
마태, 마가, 누가 및 요한의 기록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 즉 겹세마네의 고뇌, 재판정에서의 모욕, 십자가에 매달릴 때의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 등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림 : 해리 맨더슨, 겹세마네의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기독교 종파의 형제들이 교회의 침탈이나 예배당의 단상에 십자가를 사용하거나 그들의 복장에 십자가를 부착하고, 책이나 기타 다른 출판물에도 십자가를 새겨놓는 것을 조금이라도 비난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 의미있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 때문에 그가 저를 잘난 척하거나 독선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군복이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군복에 십자가를 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똑바로 관찰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피상적으로만 관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 인물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식 명칭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경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전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신성한 영감을 받

아 말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이신 분의 탄생과 성역과 사망과 부활 등의 사건이 언급된 마태, 마가, 누가 및 요한의 기록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대의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로마서 1:16)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사도행전 4:12) 유일한 분임을 주장합니다.

경전은 그리스도를 증거함

신세계의 성약으로 불리며, 이 서반

구에서 고대에 살았던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물문경은 유대의 베들레헬에서 태어나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증거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서 그것은 주님의 신성함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증거입니다. 1500년 전에 미대륙에 살았던 한 예언자가 쓴 그 책의 서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하기 위해 그 책을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계시의 책인 교리와 성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자신을 분명히 알려 주셨습니다. “나는 주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끝이요, 세상의 구속주니라.”(교리와 성약 19:1)

이같은 말씀과 간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리조나의 그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왜 당신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망의 상징인 갈보리의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함

그러한 분들께 저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교회의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

마리아가 처음으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을 때 "랍오니여"라고 부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참으로 생명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의 주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주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 즉 겻세마네의 고뇌, 재판정에서의 모욕, 그의 살을 찢는 가시관, 빌라도 앞에서 폭도들이 피를 부르는 소리, 갈보리로 가는 길을 외롭게 걷는 무거운 발걸음,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의 끔찍스러운 고통, 그 비극의 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라고 외치신 하나님 아들의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잊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써 고문의 도구며, 평강의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고안된 무서운 장치며, 병자를 고쳐주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놀라운 업적을 악으로 보상한 기구였습니다. 주님이 골고다의 외로운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우리 각자를 위해 대속의 희생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안식일 전날 어두운 저녁 빛 속에서 그분의 생명없는 육신을 끌어내려 누군가가 내어준 무덤에 황급히 넣어 놓았을 때는 그분을 가장 잘 알고 열렬히 따르



그림 : 해리 앤더슨, 부활

던 제자들까지도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전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희망을 잃고 낙담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른 메시야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소망과 신앙과 희망을 걸고 있던 그들의 구세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을 말씀하시던 그분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분이, 그 앞에 죽어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그분의 슬픔에 찬 짧은 생애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분의 생은 이사야가 오래 전에 예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이사야 53:3, 5) 이제 그분은 가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토요일에 해당되는 유대인의 안식일의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던, 그분을 사랑한 사람들의 느낌을 다만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그런 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안식일인 일주일의 첫째 날이 밝아 왔습니다. 슬픔에 가득 차서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누가복음 24:5)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여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1: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분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셋째 날에 그분은 힘차고 아름답게 살아나 잠자는 모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는 말씀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하신, 잊을 수 없는 말씀은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의 그분은 돌아가신 예수였습니다. 무덤에서 그분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유다의 배신에서 나온 쓴 열매였고 베드로의 부인의 결과였습니다. 빈 무덤은 그분의 신성함과 영생의 확신을 증거해 주며 응답을 받지 못한 욱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욱기 14:14)

생명의 주님

죽은 것으로 그쳤다면 그분은 그대로 잊혀졌거나 아니면, 그 생애가 역사책에 몇 줄로 소개되는 많은 훌륭한 교사 중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사야와 함께 그분의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욕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욱기 19:25~27)

마리아가 처음으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을 때 “랍오니여”(요한복음 20:16)



그림 : 해리 앤더슨, 내 손과 발을 보라

참조)라고 부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생명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의 주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물러가고, 무덤의 승리가 깨어졌습니다.

두려움 많던 베드로도 일변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까지도 엄숙하고 경건하게 또 실제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한복음 20:28)라고 외쳤습니다. 그 놀라운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잊을 수 없는 말씀은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한복음 20:27)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고린도전서 15:6)라고 바울이 기록한 그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반구에도 나타나셨음

그리고 서반구에도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보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시 무리 가운데 서심에...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 하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일어나 내게로 와서...”(니파이삼서 11:3, 6~10, 14)

이어서 이 아름다운 기사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대 미대륙 백성들에게 베푸신 많은 성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의 증인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의 증인이 있습니다. 예언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운 시현 가운데 부활하신, 살아 계신 주님과 그분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대 진리의 회복을 위해 소년 예언자에게 나타나신 것임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구세주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앞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교리와 성약 110:4)



그림 : 디어더 고르카,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난 주님

다. 그 후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히브리서 12:1)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는 엄숙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24).

이상의 간증에다 지금까지 성령의 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엄숙하게 간증해 왔고 또 현재 간증하고 있는 수백만 증인들의 간증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은 그들에게 힘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함

이처럼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상징물을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합니까? 어떤 표적이냐, 어떤 예술 작품, 어떤 형태의 표현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어떤 상징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

키리라."(요한복음 14:15)

그분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비열하고 거짓되고 무례한 짓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하고 품위있고 고결한 행위로 우리가 받들고 있는 그분의 이름의 상징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표현하는 상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것으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승리한 나의 구속주
살아 계심을 아오니
고통과 사망 이기신

나의 왕 나의 구속주
신앙의 반석 인류의
밝은 빛 살아 계시니
사망의 장막 너머로
더 좋은 길 밝히시네
주님의 영광 평안을
저에게 내려 주소서
의로운 길 걷는 신앙
영생으로 이끄시네
(찬송가, 75장)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구속주께서 갯세마네와 갈보리 언덕에서 치르신 그 끔찍한 대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2.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삼 일 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3.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 그분은 고대 미대륙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셨으며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5. 현대에 그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다른 증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6. 우리의 생활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라고 하셨던,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포용

에드와드 판토하스 솔리스

선 교사 추천서를 작성하면서 나는 매우 흥분했다. 얼마나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기다려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것은 잔잔하지만 보통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별로 주의 기울이지 않았다.

조국인 멕시코 메리다 선교부에서 일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주님이 승인해 주신 것을 느꼈다. 다시 그 다른 느낌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어쩐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오면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평온했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과 조카인 이스라엘이 나와 함께 선교사 훈련원으로 갔다. 나는 헤어지면서 아버지를 다정하게 끌어안았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이전에 느꼈던 그 느낌이 다시 일어났다.

선교 사업 초기부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때때로 귀환하면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고 안계실거라는 이전의 그 느낌을 계속 받았다. 그러나 전혀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1993년 어버이 날에 부모님께 전화할 기회가 있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출 수 없는 수심이 깃들인 것을 느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물었다.

“아무 일도 없단다. 선교 사업이나 열심히 해라.”

“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내게 “아버지께서 몹시 아프시단다. 더 이상 견지도 못하셔. 의사의 진단으로는 뇌종양이래. 무슨 일

이 일어나든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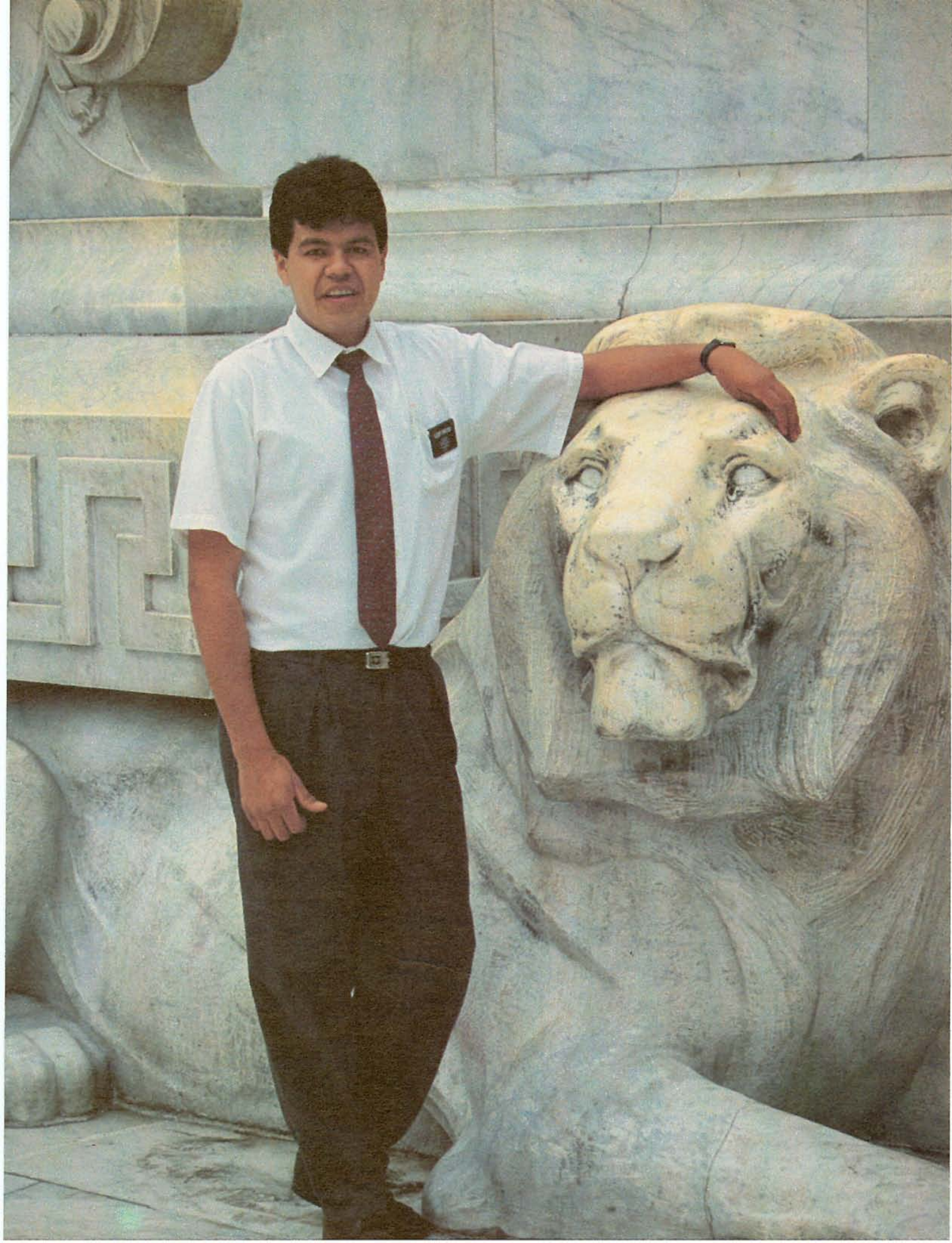
아버지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전화기를 건네 받으셨다. 그분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네 부름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일하는 걸 중단하지 마라. 계속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듣지를 못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삼 주 후에 돌아가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보낸 지난 날의 모든 경험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께서는 충실함과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내게 아주 소중한 분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회원이었던 큰누나는 내가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교부장님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나는 선교 사업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내가 계속 선교 사업을 하기를 바라실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누나가 이해해 주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전화로 누나에게 이야기하자 누나의 마음이 바뀌었다. 누나는 내 결정에 화를 내지 않았으며 나에게 “너희 교회가 아주 중요하고 네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난 널 믿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선교 사업 기간 동안 계속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귀환했을 때, 나를 맞아줄 좋은 친구이자 교사는 그곳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구세주의 속죄와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강화되었다. 나는 선교사 훈련원으로 들어가기 전날 부모님께 인봉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린다. 나는 다시 아버지를 보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을 껴안을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안다. □

멕시코 아라메다 공원에서 돌사자와 함께 한 에드와드 판토하스 솔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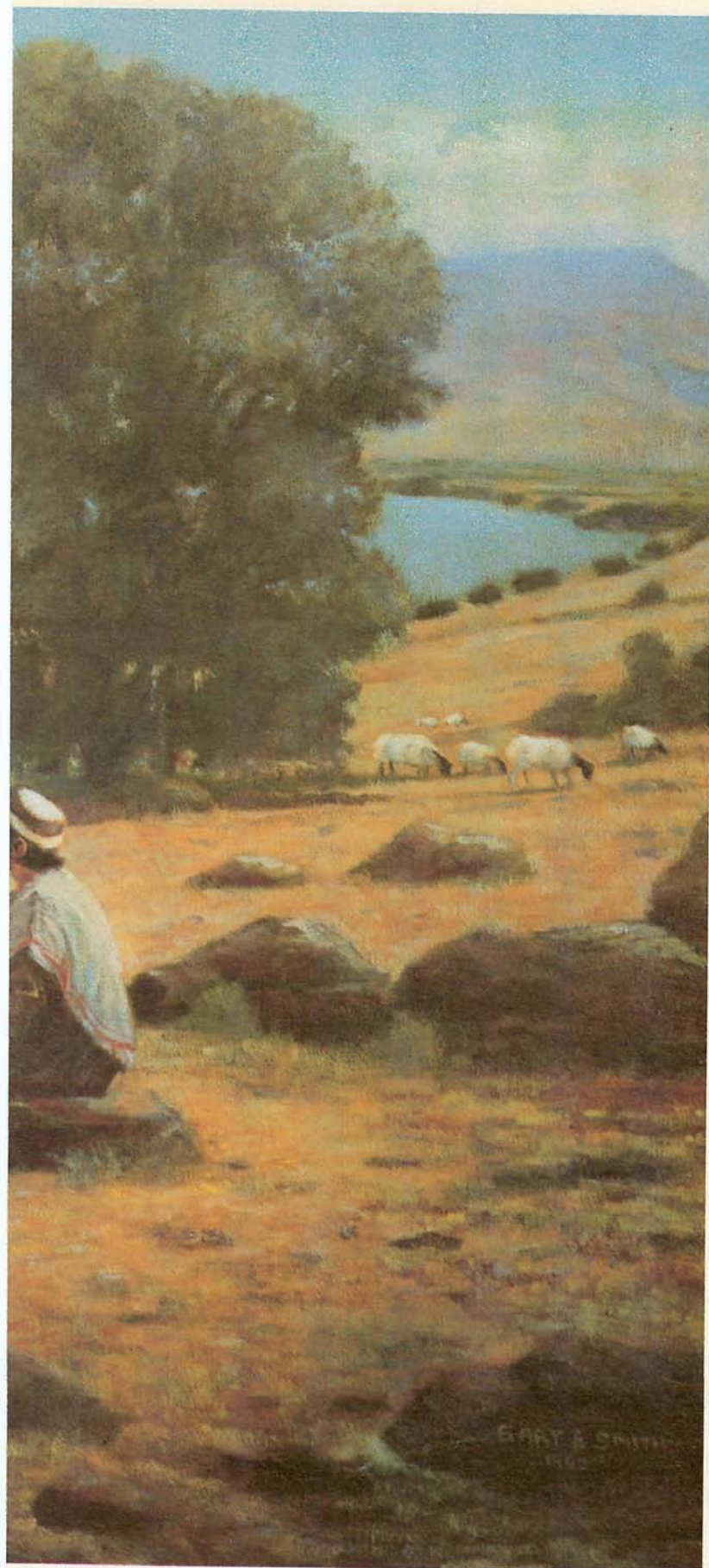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
칠십인 정원희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린도전서 15:20)가 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위대성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습니다. 충만한 영광과 눈부신 희망의 그 부활을 묘사한다는 것은 필멸의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력으로는 그 부활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진리 중의 진리를 어두운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렴풋한 윤곽만을 보면서 간신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모세의 기록보다도 더 오래된 고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길가메시라는 이름의 고대 제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이야기보다 더 오래 전부터 진정한 실재를 찾으려 다녔습니다. 그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분은 나머지 사도들에게도 여러번 나타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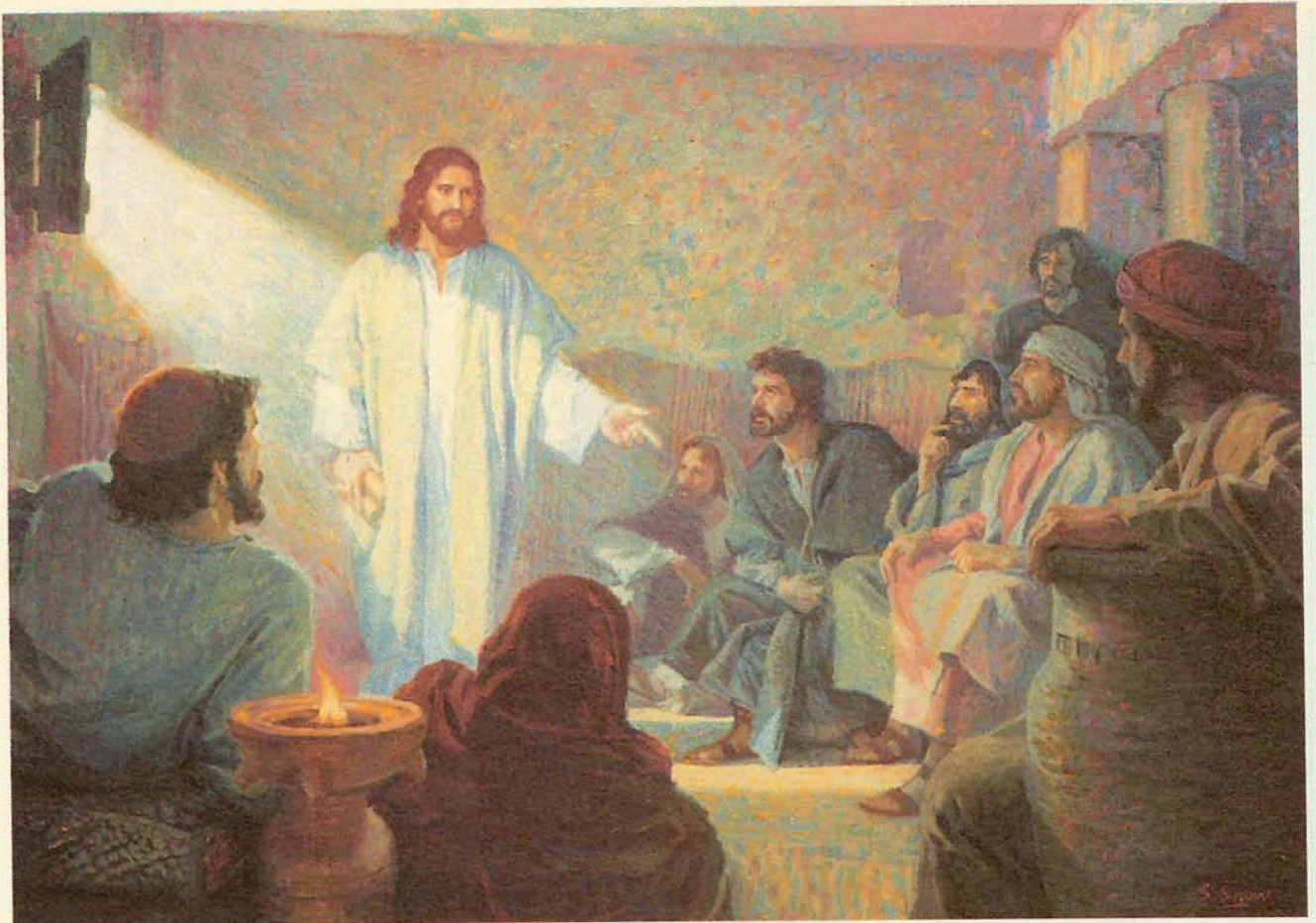


그림 : 스코트 엠 스노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야기는 기원전 7세기경의 점토판 일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점토판은 앗시리아의 왕이었던 아술바니팔의 왕궁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천년 전 또는 모세보다 더 이전 시대인 고대 수메르 제국 때의 것입니다.

그 서사시는 길가메시가 모든 귀한 것 중 가장 훌륭한 상인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길가메시는 절친한 친구인 엔키두가 죽자 생명의 의미를 알기 위해 노력했으며 모험과 여행과 쾌락의 추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생명은 탄생과 죽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적으로 고대 길가메시 시대보

다 45세기나 떨어진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 그같은 결론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몰몬경 시대에 엘마와 엠올레크가 전도하러 갔던 조렘인들도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엠올레크는 조렘인들이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들의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강림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의문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엘마서 34:5 참조) 엠올레크의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수메르의 길가메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한 반증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알기를 갈망하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가메시보다 25세기 뒤에 이 세상에 온 나사렛 예수가 인류에게 영원한

제자들이 다락방에 앉아서 부활하신 구세주를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누가복음 24:36)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동정녀인 어머니와 전능하신 아버지 엘로힘의 소생으로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에게 배반당하여 어리석은 재판정에서 잔인한 조롱을 겪으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 사이의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빌린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그 무덤은 입구가 큰 돌로

막힌 채 로마 병정들의 감시에 놓여졌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여 인들이 첫 부활절 아침에 그들이 사랑 하는 주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 르기 위해 그 무덤을 찾았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으며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가장 장엄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 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 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5~6)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포함된 그 목격자들에게서 전해 들었을지도 모르는 누가는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믿지 않았 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뵈어 믿지 아니”(누가복음 24:11) 하였습니다. 초기의 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 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데는 많은 이유 가 있으며 그 대부분은 인간적인 경험 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죽음은 만민에 게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생의 경험만큼 일률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나인의 과부의 아들(누가복음 7:11~15 참조)이나 회 당장인 아이로의 딸(마가복음 5:35~43 참조) 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요한복음 11:43~44 참조)가 다 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멸의 생의 연장으로써 목숨 이 다하면 다시 죽어야 하는 경우였습 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모든 사 람들의 경우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생 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 히 살기 위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영원 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속죄의 은사 중 하나는 모든 사람 죽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 게 불사 불멸이 주어지고, 죽음이라 불 리는 원수는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입 니다. 앰올레크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 습니다. “영과 육체는 원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다시 결합될 것이요, 수족과 뼈의 마디가... 그대로 회복될 것이 라... 이 부활은 모든 사람 곧 늙은 사 람이나 젊은 사람, 속박에 매인 사람이 나 자유로운 사람, 남자나 여자, 약하거 나 의로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요.”(엘머서 11:43~44) 성경은 예 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40 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 며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셨다고 말해 줍니다.(사도행 전 1:3 참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 음으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 니다.(요한복음 20:16~17 참조) 야고보 의 어머니인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요안나, 수산나를 포 함한 다른 여인들도 역시 부활하신 그

리스도를 보았습니다.(마태복음 28:1~ 9; 마가복음 16:1; 누가복음 8:3; 23:55 ~24:10 참조) 또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자 신을 나타내 보이셨고(누가복음 24:13 ~32 참조) 나머지 사도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누가복음 24:36~ 43; 요한복음 20:26~28; 마태복음 28:16~19 참조) 승천 시에도 제자들 에게 자신을 보이셨으며(사도행전 1:11 참조), 고기잡이를 하는 몇몇 제자들 에게도 나타나셨고(요한복음 21장 참조), 베드로(고린도전서 15:5 참조)와 야고 보(고린도전서 15:7 참조)와 또 일시에 500 여 형제(고린도전서 15:6 참조)에 게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린도전서 15:9)로 여긴 바울에게 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물론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충실한 니파이 백성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 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이 요약한 니파이의 기사에는 그 첫번째 나타나심 이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 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 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 온 무리 의 눈이 저에게로 향하였으나 감히 입 을 열지 못하였고, 저가 누구인지를 깨 닫지 못하였으니, 무리는 후 천사가 저 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였느니라.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 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림 : 존 스코트, 니파이인을 방문하신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 니파이인들은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 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니파이삼서 11:8~10)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 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니파이삼서 11:8~10)”

우리 시대에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20년의 첫번째 시현을 시작으로 여러 번 부활하신 구세주를 보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16~17) 후에 그와 시드니 리그돈은 1832년 2월 16일 오후 이오주 하이람에서 받은 영광스러운 시현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함을 배웠습니다.(교리와 성약 76:22~24 참조) 또한 1836년 4월 3일에 요셉과 올리버 카우드리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그와 같이 놀라운 시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걷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서 계시더라. 주의 발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니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

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교리와 성약 110:1~4)

예수님에 대해, 그의 부활의 실재성에 대해, 심지어는 그의 역사적인 실재성에 대해 품는 회의와 냉소주의는 우리 시대의 특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의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출생과 부활을 부인하며, 그의 계명을 비웃고, 영원하고 분명한 산상수훈 대신 빈약한 상황 윤리를 내세우는 박식한 학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 봅니다.

만일 사탄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처음부터 그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마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



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마태복음 28:12~13)는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시켰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병사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15절)다는 기록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 그대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의 대부분 가난과 무지와 부정의 죄악을 바로 잡는 것과 관련된 일종의 사회적 윤리 강령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 영감받은 도덕가, 신앙요법 의사,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속죄하고 부활하신 구세주로서

의 그의 독특한 역할은 점차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고린도전서 15:14,19)일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견해는 세상의 냉소적인 불신앙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영은] 육체보다 먼저 존재했고 육체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육체가 흠으로 변하면 육체를 떠나 존재할 것이며, 부활할 때 다시 육체와 결합[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5쪽)

말일성도의 신앙은 세상의 믿음과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생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더불어 온 세상에 “사망과 지옥이 각각 죽은 자를 내어놓으며 지옥이 속박했던 영을 내어놓고 무덤이 속박했던 육체를 내어놓을 것이매,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부활의 권세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저마다의 것으로 회복되리라”(니파이이서 9:12)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통해 우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역사의 시작과 종말과 마지막에 다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신앙의



그림 : 그레그 케이 올슨,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눈으로 “표적과 기사와 예표와 그림자” (모사이야서 3:15)에 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진리가 그분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니파이이서 11:4 참조) 그분은 빛과 진리의 완전한 모범이었으며 아름다움과 선함의 전형이었지만, 무엇보다 생명과 사랑의 완전한 모범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포함하여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행치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심이요, 세상 만인을 주 앞에 인도하시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이라.” (니파이이서 26:24)

“만물을 사실대로”(야곱서 4:13) 볼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가졌던 시에

스 루이스는 우리가 불사 불멸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전하라는 계명은 이상론적인 빈말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계명도 아닙니다. 그분[그리스도]은 우리를 그 계명대로 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우리를 “신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해드린다면 그분은 가장 연약하고 추한 우리를 신과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피조물로 만드시고,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과 기쁨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구세주와의 첫번째 만남은 성스러운 숲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그의]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7)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소유하신 무한한 힘과 기쁨과 선함을 완전하게(물론 더 낮은 단계의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되비치는 맑게 빛나는 거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일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참 기독교, 뉴욕시: 맥밀란 페이지백스, 1960년, 160쪽) “온전하라”

(마태복음 5:48)는 계명은 단순간에 성취될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 진지한 시도를 해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약속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존재의 또 다른 경계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불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수록 우리는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출생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살았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별의 피조물이며 시간의 여행자로서 만일 참되고 충실하다면 해의 왕국으로 돌아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우리 구세주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팔로"(교리와 성약 6:20)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와 필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는 권세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분은 부활을 통해 물질을 지배하는 완전

한 권세를 보여 주었으며 모든 원수와 사망의 원수까지 그의 발아래 두시는 능력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97쪽 참조) 그분은 물질을 지배하시며 물질은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세상이 창조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부활의 실재성은 신앙에 대한 실례입니다. 세상이 더욱 사악해짐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점차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짐에 따라 욕이 제기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14)라는 질문에 살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더욱 적어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은 여전히 확고하고 지금도 참됩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요한복음 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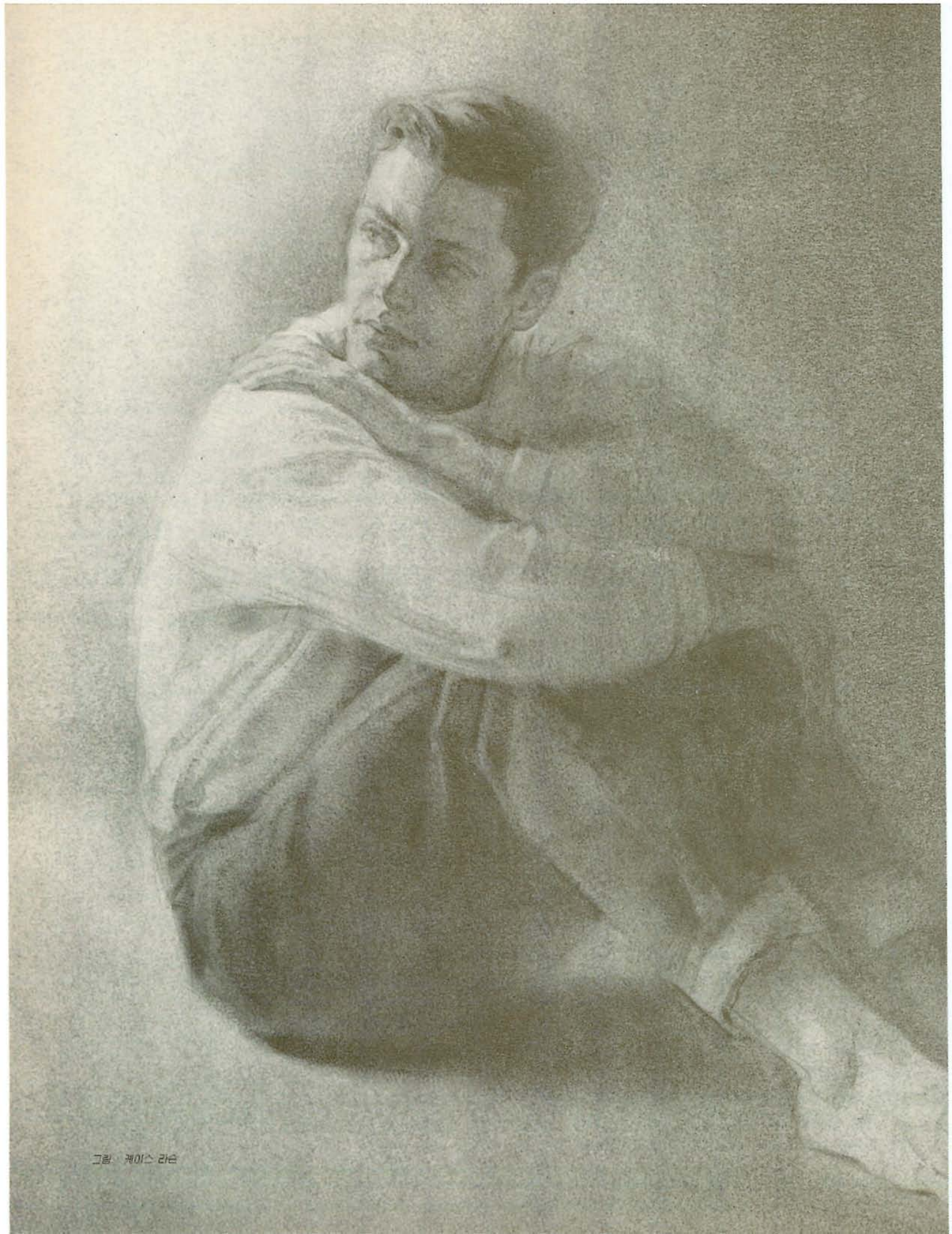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구했으나 그것을 찾을 수 없었던 고대 제왕인 길가메시의 이야기로 제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길가메시가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간단한 사실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모든 노력과 풍부한 창의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명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인류를 냉엄하게 움켜잡고 있는 존재에 관한 절망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무덤의 사슬을 깨뜨리고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라 불사 불멸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존재에 관한 절망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의 희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빛을 졌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빛을 지켰습니까! 우리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은 기적적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품으신 사랑에 대한 심오한 증거이며 또한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 돌아가셨던 흠없고 고귀한 구세주의 사랑에 대한 심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큰 은혜 주는 이 말씀
한때 죽으시었으나
영원히 사시는 줄세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위에서 날 변호하시며
굶주린 내 영 먹이시고
구하면 축복 주시네
(찬송가, 68장) □

1994년 3월 17일에 칠십인 정원회에서 하신 말씀의 요약문.



과거에 집착함

존 버 피쉬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한 가지 축복은 성전에 참석하는 데 합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의 보좌를 역임한 바 있는 저는 성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다수의 교회 회원을 접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문제로 인한 심적인 갈등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형제나 자매들 중에 한 사람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심한 갈등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면, 휴 비 브라운 대관장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의 과거야 어떠했건 여러분의 앞에는 티없이 깨끗한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9년 12월호, 95쪽) 또 지혜로운 어떤 스테이크 부장님이 권고해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자꾸 돌이켜 생각하고 후회를 한다면, 그로 인해 여러분은 파멸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함

과거를 되돌아 보는 목적을 이해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재조명해 보되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끊임없이 집착한다면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죄의 경우가 특히 그러합니다.

예전에 제가 참여한 바 있는 교회의 선도 평의회에서 한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저는 승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암흑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한 가지 죄 때문에 승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그 형제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속죄로 인해, 우리가 회개하면 과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학함

범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자책을 한다면 절망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를 받은 피해자가 그들이 받은 학대에 다소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그와 같이 모진 학대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오래 전 전쟁 중에 세 명의 청년이 적군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세 명 중 한 청년은 경상을 입었고 또 한 청년은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한 청년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세 청년 중 경상을 입은 청년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 남은 것에 대해 오랫동안 두고두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그 문제를 두고 심한 심적인 갈등을 느꼈던 나머지 필경은 살아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간의 죄를 진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나친 죄의 식으로 자신을 거의 파멸의 지경에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책 속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전쟁에서 살아 남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쟁의 생존자였기 때문에

아들이 겪고 있는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에 공감을 할 수가 있었고 아들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뉠대로의 방법으로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자 그는 마침내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유감스러웠던 점은 제가 미래 지향적인 긍정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부질없이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항력적인 일에 자책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끊임없는 자책을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삶을 헛되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과거는 오히려 자신에게 축복이었으며 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책을 하며 부질없는 과거에 집착한다면 언제나 과거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치료는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할 때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때로 죄를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과거에서 헤어날 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대의 소녀 시절에 저지른 무거운 죄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며 지내는 나이가 지긋이 든 자매님에게 도움을 받을 준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을 되돌아 볼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통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까닭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 (교리와 성약 58:43)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쩐지 저의 죄를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에 지쳐서 주저앉고 만답니다. 요즘에는 죽기 전에 제 영혼을 깨끗이 하기가 틀렸다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 전에 자신의 죄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때 느끼는 참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 화평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후일에 제가 그녀의 장례식에 갔을 때, 마침내 그녀가 과거에 매달리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고

맷게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상처는 아물 수 있겠지만 이에 는 합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만 한다면 평생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 회개의 은사를 받아들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주님의 속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20년 간 소식이 끊겼던 친구와 얘기를 나누었을 때, 그 친구는 옛날 학생 시절에 있었던 한가지 일이 생각이 났던지 그 일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세계 그 일이 생각이 나느냐고 그 친구가 물어 보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땀 사람하고 착각하고 있겠지."

그랬더니 그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천만에, 그 일에 우리 두 사람 모두 관련이 있었어."

그 후에 저는 형님께 그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고 저의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님은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게, 아우님, 좋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는 것 정말 싫지만, 그게 바로 자네였다네. 그 일이 눈에 선하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일을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것처럼 영똥한 일에 끼여든 것을 잊어버리다니, 말도 안돼! 이때 물론경의 한 구절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엘마가 회개를 하고 나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 경위를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엘마서 36:19).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저는 회개를 하여 회한의 아픔이 말끔히 가시고 달갑지 않은 그 일을 잊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개를 한다고 해서 모든 죄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해서도 안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설사 우리가 저지른 죄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지나간 일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부단히 죄의식이 나 절망감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엘마처럼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 (엘마서 36:19)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속죄에 따른 축복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에 대한 간증을 굳건히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회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고통은 사라지고 대신에 우리는 화평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과거를 돌아보는 방법과 시기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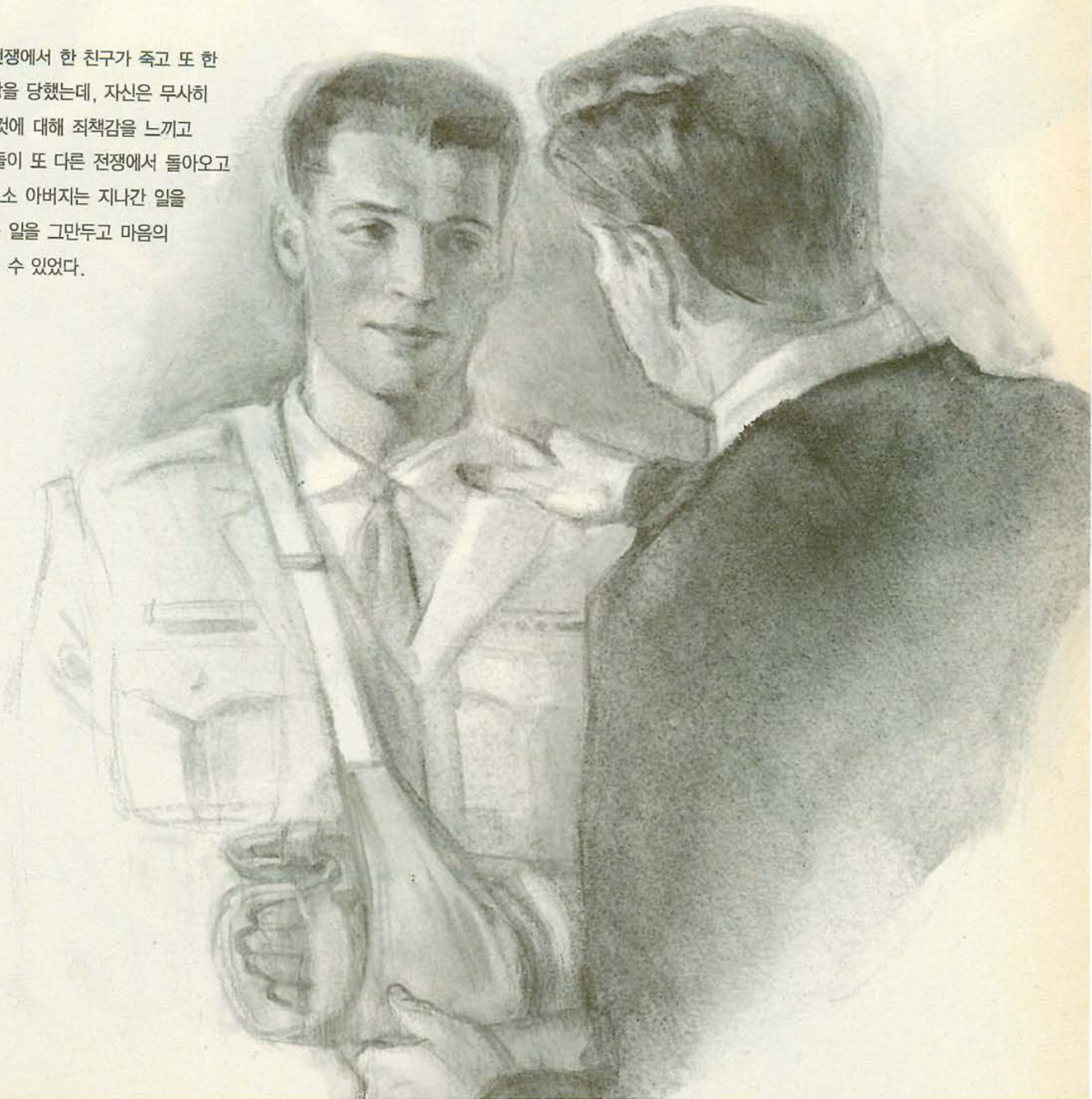
어떤 어머니가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문제를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자녀에게 충고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준 해결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내려야 하는 거의 모든 결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준 해결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선을 늘 밝은 빛 쪽으로 향하도록 해라.”

이 얘기에 저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지 말아라. 과거는 과거의 일로 묻어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밝고 새로운 미래를 주신 것을 기뻐해라.” □

아버지는 전쟁에서 한 친구가 죽고 또 한 친구가 중상을 당했는데, 자신은 무사히 살아 남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들이 또 다른 전쟁에서 돌아오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는 지나간 일을 되돌아 보는 일을 그만두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더 깊은 상처를 치료함

폴 비 더곳

엠 블런스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쓴살같이 지나갈 때면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름이 돋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앰블런스의 운전대를 잡고 병자와 부상당한 사람을 구하러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응급 치료와 인문 과학 과정을 마친 다음 응급 치료 기술 훈련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 저는 민간이 운영하는 앰블런스의 조무사직을 첫 일자리로 얻게 되었습니다. 조무사의 임무 수행을 하면서 응급 치료에 대한 지식을 빨리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잘 모르는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물몬다운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무 분위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저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결같이 경고한 그런 분위기였으나 당시 저는 그 점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무 일정상 안식일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곤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문하면서 종종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 어느덧 한 차원 높은 의학 지식을 터득하게 되었고, 따라서 아무것도 거칠 게 없는 듯 했습니다. 열아홉 살

생일이 되던 날, 저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어느 병원의 진료 보조원 과정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합격하여 가을 학기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득 선교사로 나가는 문제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물론 친구와 가족을 보면 선교사로 나갈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직장 고용주에게도 제가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시큰둥하게 여겨졌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마냥 만족스럽게 여겨지면서 어쩌면 영적인 발전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언자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선교사의 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어김없이 다시 머리에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2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진료 보조원이 될 수 있는 꿈은 더욱 멀어질 것이 아닌가!”

정말 난감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이기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저의 머리 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24시



간 교대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막, 잠이 든 직후에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고속 도로 순찰대가 고속 도로상에 사고가 났으니 앰블런스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해 와서 곧 현장에 당도해 보니, 조그마한 승용차가 울다리용 나무 기둥을 가득 실은 대형 트레일러의 뒤를 받은 사고였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승용차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되는 신혼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남편은 즉사했고 아내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서히 목숨이 꺼져 가는 19세의 신부를 구하고자 필사적인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아름다운 신혼 부부에게 끔찍한 사고가 나서 미래의 꿈과 행복을 일순간에 앗아가버릴 수 있던 말인가!'

우리는 부상당한 신부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을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숙련된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헬리콥터가 도착하여 부상자의 머리의 심한 부상을 특수 치료할 수 있는 솔트레이크의 한 병원으로 수송하였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충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자, 저는 신혼 부부와 가장 가까운 인척에게 연락의 책임을 맡은 고속도로 순찰 대원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순찰 대원이 차를 몰고 떠날 때의 그의 얼굴의 엄숙한 표정과 눈에 맺힌 반짝이는 눈물을 영영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임무 치고는 *고약하군. 내 부모님이 이 사고를 전해 들으면 심정이 어떠실까?* 이때 또 한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보낸 세월을 구세주께 설명한다면 그때의 내 표정은 어떨까?'*

밤공기는 늦게 내린 서리로 인해 매우 차가웠습니다. 밤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니 하늘은 맑고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뺨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이 어린 신부의 생명을 구해 줄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괴롭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사랑과 연민의 정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저 아련하

기만 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와 진료 보조원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이긴 하였지만, 그들은 육신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오직 한 분의 의사만이 영적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조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적인 상처의 치료사인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마침내 사고가 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저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교통 사고로 중상을 입은 신부가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의 계명을 지켜 선교사로 봉사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동안 성령을 통해 제가 선교사로 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를 하여야 한다는 확신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크 축복사님이 제게 축복사의 축복을 해주실 때 느낀 평온하고 감미로운 느낌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신 하나님의 예언자의 서한을 펼쳐 보았을 때에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 느낌 역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 펜실베니아에서 봉사를 하면서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미치자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한 느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 임지로 떠나기 전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떤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이와 같은 보람찬 느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에서 이보다 보람찬 느낌은 없을 것입니다. □

“봉사에서 큰 기쁨을 얻음”

“주님께서는 나의 수고의 결실로 무한히 큰 기쁨을 내게 주셨으니” (엘마서 36:25)

“주가 [우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모사 이야기서 18:10)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엘마는 가르쳤다. 기쁨이야말로 영을 통해 얻는 결실 중의 하나이다. 인가 브리트 소더스트롬 자매는 남모르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이 기쁨을 누린다. 그녀는 스웨덴 스텔프티의 북극권 바로 남쪽에 살고 있다. 나이가 70세이고 키는 116cm에 불과하며 언제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녀는 과거처럼 육신으로 하는 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집으로 선교사와 구도자를 초대하고, 같은 지부 회원들과 간증을 나누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등 당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있다. (치치 뉴스, 1994년 4월 16일자) 그녀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해 큰 기쁨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림 : 윌리 마쉬

어 가는 신앙, 육체적인 불구, 질병 및 절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하라”(교리와 성약 81:5)고 권고하셨다.

기쁨은 그리스도처럼 봉사할 때 누릴 수 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자선의 행위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것과 같은 봉사를 실천하여 순수한 관심을 표명할 때, 이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그들의 가족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통가 출신 자매로 구성된 한 그룹이 상호부조회의 문맹 퇴치 사업의 하나로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들의 생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때 맛보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문맹

퇴치 사업을 통해서 자매들이 얻는 보람이다.

베스 트레이시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스테이크 초등학교 직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많은 걱정이 되었다. 교회에 개종한 후, 초등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대개 성인들과 봉사하며 교회 생활을 해온 베스 자매는 자신의 걱정을 이런 말로 토로하였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지?” 하지만 베스 자매는 유아반의 특수 교육을 통해, 역시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초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일깨워 주고, 여러 나라 출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큰 만족과 기쁨, 즉 자신과 같은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것과 같은 봉사(모사이야서 2:17 참조)를 베풀 때 얻는 큰 보람을 맛보게 되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행의 대가로 받게 되는 기쁨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했다. “어떤 땅이나 어떤 도시나 어떤 가정이나 어떠한 삶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같이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의 손길을 내딛시다.” (엔사인, 1982년 8월호, 6쪽)

-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북돋아 주며 그들의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

구세주는 우리의 모범이심

구세주께서 베푸신 성역을 보면 그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가르치고 도우시는 경우가 더 많았다. 우리 역시 작고 단순한 사랑의 일 한 가지를 실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기여 할 수 있다. 우리의 봉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소책자, 가정을 강화함, 1973년, 7쪽)라고 말씀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셨다. “고아와 과부”(야고보서 1:27) 그리고 시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명예롭게 귀환함

래린 곤트



“장로 정원회 회장의 부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얼핏 보기에 이 같은 요청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위해 공부에 여념이 없던 로버트 디 헤일즈로서는 답변하기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 속으로는 이 부름을 받고 싶었지만, 한눈을 팔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짜여져 있는 대학원의 교과 과정 때문에 교수들은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로버트는 잘 알고 있었다. 아내인 메리와 이 문제를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헤일즈 가족은 아파트에서 나이 어린 두 자녀와 같이 살고 있었다. 로버트와 메리는 이 부름에 대해 의논했지만 로버트가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석사 학위를 위한 학업을 마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수없이 기도하고 의논한 끝에 메리는 이렇게 말했다. “하버드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활동적인 신권 소유자를 원해요. 우리 두 가지 다하도록 해요.”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로버트는 메리가 아파트의 미완성된 지하실 한 모퉁이에 벽을 만든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조그마한 사무실은 로버트가 공부를 하고 부부가 주님께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지금,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

한다.

“그 결정을 내릴 때 제 자신을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그 결정은 몇 해가 지나서 제가 십이사도 보조의 부름을 받고 사업을 뒤로 미웠던 일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가 남들이 잘 안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청년으로서 우리가 것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주님께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를 보여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일즈 장로와 헤일즈 자매는 이 결정을 본보기로 하여 평생 동안 이와 같이 결정을 내렸다. 두 부부는 언제나 한 짝이 되어 가정 생활, 교회 봉사 및 사업에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여 어느 쪽도 소홀함이 없이 배려하였다. 이것은 로버트 디 헤일즈의 생애를 빛나게 한 자질, 즉 의로운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성실과 명예를 중시함을 나타내고 있다. 1994년 2월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별세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이 되면서도 다른 고결한 성품과 더불어 이와 같은 성실과 명예 의식을 그대로 발휘하였다.

넓고 깊이 내린 뿌리

1932년 8월 24일 뉴욕 시에서 출생한 로버트(친구들과 가족은 애칭으로 그를 봄이라고 불렀음)가 보낸 어린 시절은 그의 인생에 깊고도 폭넓은 뿌리를 심어 주었다. 제이 롤린과 베라 메리 홀브루크 헤일즈의 세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난 로

왼쪽: 1994년 4월에 성임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윗쪽: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의 모습



뉴욕에서 어린 시절 ; 왼쪽 : 부모와 형님과 누이와 함께 찍은 사진, 로버트는 흰 옷을 입었음.
오른쪽 : 소년 시절;아랫쪽 : 고등학교 야구팀의 투수 시절

버트는 가문의 뿌리를 내린 아이다호주와 유타주에서 멀리 떨어진 뉴욕주의 롱아일랜드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들백합화와 천남성류가 만발해 있으며 숲이 우거진 넓은 헤일즈 집안의 뜰에서 로버트는 누이인 재니트와 형인 제럴드와 뛰놀기를 좋아했다. 상업 화가였던 아버지는 이따금 아이들에게 뜰에다 암석 정원을 만들고 물고기가 노니는 인공 연못을 만드는 일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롤런 헤일즈는 원래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출신이었으며, 단거리 경주에 능한 말을 길렀던 롤런의 할아버지는 브리감 영 대관장이 관개 수로를 파는 일을 돕도록 렉스버그에 보낸 사람이었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증조 할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말이 죽었을 때 일기장에 쓰신 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말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한 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기른 말들은 그들에게 맞지 않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잘 들었다.’”

베라 홀브루크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이주하여 정착한 유타주의 바운티폴에서 자랐다. 폭풍 때문에 바운티폴 태버내클의 지붕이 날아가 버리자 자신의 집을 짓고 있었던 홀브루크 할아버지는 태버내클의 지붕을 뜯어 내고 새 지붕을 만드는데 쓰라고 그가 가진 건축 자재 일체를 서슴없이 내놓았다.

헤일즈의 자녀들은 미국의 동서부를 통틀어

가장 좋은 곳에서 살았다고 헤일즈 장로의 누이인 재니트 헤일즈 클라크는 그 시절을 회상한다. “매년 여름이면 어머니는 우리 세 자녀를 바운티폴에 사시는 홀브루크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로 데리고 가서 같이 지내게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댁에서 조카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금방 친형제 자매처럼 친해졌습니다.”

로버트는 유타주 스쿨 계곡에 있는 조카들의 목장에서 두 해의 여름을 지내기도 하였다. 헤일즈 장로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전한다.

“우리는 여름 내내 산골짜기에서 건조 다발을 만들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소금 덩어리를 가축에게 먹이기도 하며 양과 가축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참 멋진 시절이었지요.”

로버트는 뉴욕 시에서 자신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마침 그가 다니는 고등학교 지역에 유엔 본부가 있었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사귀 유엔 대표의 자녀들에게서 다른 나라의 사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로버트는 야구를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을 때는 자기 학교 야구 대표팀의 선발 투수가 될 정도로 성장하였다. 유타 대학에서도 야구 선수가 되었지만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야구 선수 시절에 인생과 사람에 대해 터득한 교훈은



로버트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고등학교 시절에 슬럼프에 빠지는 바람에 세 게임을 연달아 1:0으로 지는 수모를 겪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학교 신문은 이렇게 표제를 달았다. "역세계 운이 따르지 않는 헤일즈, 다시 패하다." 그는 선수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기 위해 선수복을 들고 코치를 찾아갔다. 코치 사무실을 찾아가자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시합에서 패한 이유를 알겠는가? 시합 전에 자네는 몸을 푸는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관중에게 자네 실력을 뽐내 보려고 속구와 커브 볼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후반부에 가면 팔이 피로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2회나 3회를 던지면 잘 던지는 것이겠지. 그러니 뽐내려는 어리석은 투구는 그만두게. 그러면 자네 팔이 지칠 리가 없겠지." 코치의 충고를 귀담아 들은 로버트는 다음 시합에서 상대팀에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헤일즈 장로는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이래서 선수는 그가 꼭 들어야 할 얘기를 해주는 코치를 좋아합니다. 코치의 말을 잘 명심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주님께서도 코치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나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징계가 지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헤일즈 가족은 집에서 20마일이나 떨어진 퀸즈 워드에 다녔는데, 이처럼 복음은 가정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롤런과 베라는 평생 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부름을 받아들여 충실히 봉사하였다.

로버트가 어렸을 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의 많은 부분이 거의 모두가 부모가 보여 준 모범과 퀸즈 워드에서 체득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집사 정원회의 회장일 당시 로버트는 감독에게서 귀한 충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신권 지도자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워드의 집회는 시민 연맹 회관에서 열렸다. 성찬대는 무대 바로 앞 바닥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집사는 성찬기를 들고 가서 무대 위로 올라가 성찬기를 갖다 둔 다음 다시 달려와 무대에서 뛰어내린 다음 다른 성찬기를 움켜잡고 무대로 달려가는 등 성찬기를 모두 치울 때까지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였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제가 무대에서 뛰어내리니까 새로 부름을 받은 감독님이 거기에서 계셨습니다. 마루에 착지하기도 전에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자 감독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너는 집사 정원회 회장이잖아.' 감독님은 성찬기를 경건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저를 가르쳐 주신 신권 지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동반자 관계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 로버트는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이사온 대학생 메리 크랜들을 만났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녀를 만나고서부터 다른 여성과 데이트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 두 달 동안 공부 끝나면 우리는 매일 저녁 집안 일을 같이 거들며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차를 세차하는 것을 도왔고 저는 그녀가 자기 동생들을 돌봐주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합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자 로버트는 유타 대학교로, 메리는 브리검 영 대학교로 돌아갔다. 그 이듬해 여름인 1953년 6월 10일, 두 사람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을 하였다.

갓 결혼한 로버트는 대학의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솔트레이크 TV방송국의 카메라맨과 필름 편집자로 근무하였다. 헤일즈 장로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아내는 종종 샌드위치 준비해 가지고 방송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필름을 편집하여 상업 광고 필름을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메리는 제 곁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헤일즈 자매는 이렇게 전한다. "우리는 언제나 즐겁게 지냈습니다. 남편의 유머 감각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매우 자상하고요."

방송학과 경영학을 전공하여 1954년에 학위를 받고 유타 대학을 졸업한 뒤 로버트는 미국 공군에 현역으로 입대하였다. 1955년에 로버트와 메리는 갓 태어난 아들 스티븐과 함께 플로리다로 이사했다. 그것은 헤일즈 부부가 평생 동안 다닌 이사 중 첫번째 이사가 되었다. 그는 4년 동안 미전략 및 전술 공군 사령부의 F84기와 F100기를 조종했다. 1958년에 둘째 아들인 데이비드가 태어나 한 식구가 더 늘었다.

로버트는 군복무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웠다. 그가 속한 비행 대대의 예하 단위 비행 중대에는 조종사의 근무 의욕을 북돋기 위해 선정된 구호가 있었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전투기 옆에 쓰여진 모토의 내용은 명예



위쪽(왼쪽부터) : 결혼식날의 로버트와 메리; 어린 아들 데이비드 및 스티븐과 함께 찍은 로버트 헤일즈의 가족 사진;
장남삼아 손자와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헤일즈 장로. 아랫쪽 : 제트 전투기 조종사 시절

롭게 귀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토는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모든 임무를 완전히 성공리에 끝내고 비행 기지로 명예롭게 귀환해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부단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모토는 그의 사생활이나 공적인 생활을 막론하고 정직과 고결한 성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장남인 스티븐이 영국으로, 차남인 데이비드가 독일로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두 아들을 팔로 껴안으며 이렇게 속삭였다. "명예롭게 귀환하여야 한다." 그는 요즘도 이 모토를 즐겨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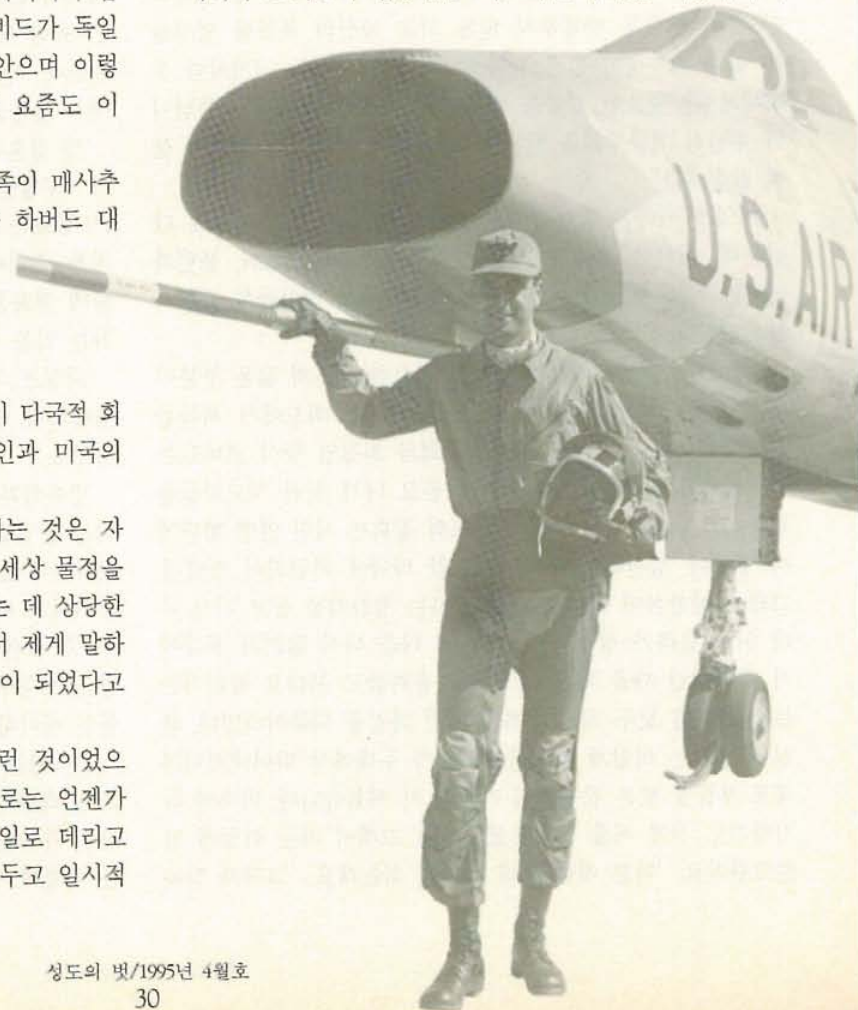
로버트가 공군에서 현역 복무를 마친 다음 가족이 매사추세츠주의 캠브리지 시로 이사하였으며, 로버트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 대학원을 다녀 1960년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 금세 사회 진출의 길이 그에게 활짝 열렸다. 그는 여러 다국적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요 중역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근무하는 직장이 다국적 회사였던 만큼 헤일즈의 가족은 영국, 독일, 스페인과 미국의 여러 지방으로 이사를 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이사를 다닌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세상 물정을 아는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의 애들은 자라면서 제게 말하기를 해외 생활이 오히려 그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다니는 일은 메리에게도 매우 고생스런 것이었으나 강한 독립심과 끈기로 잘 견뎠다. 헤일즈 장로는 언젠가 이사했던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내를 독일로 데리고 가서 그녀와 두 아이들을 프랑크푸르트에 남겨 두고 일시적

으로 맡은 임무 때문에 베를린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통이 복잡한 고속도로를 왕래하면서 길을 익히며 독일어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아내만 겪는 것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해야 할 일을 잘 해주었습니다."

메리와 로버트의 협동심은 머느리인 수잔을 비롯하여 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수잔은 이렇게 말한다. “부부의 관계는 완전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어떤 부부든지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의 관계는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의견은 존중됩니다.”

로버트와 메리가 결혼 초에 이미 다짐한 것이었지만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이같은 자발적인 마음의 자세는 두 부부가 국제 사업 세계의 경력과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과 줄곧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제가 진급을 하자 사장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어디를 가나 아내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부인이야말로 자네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이네. 그러니 자네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되네.’ 저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저를 꼼짝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널 들어올려라. 내가 널 들어올리리라. 그러면 우리는 함께 오를 것이다.’라는 웨이커 교도의 속담을 좋아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협동의 관계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들은 대부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 팀이 되어 협동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제가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으로 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 신조가 저의 인생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함

하버드 대학교 경영 대학원 시절,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세운 원칙에 따라 헤일즈 장로는 직장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부름은 어느 것 하나 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여러 가지 교회의 부름을 받아들여 봉사해 왔지만 이 부름의 거의 모두가 지부장이나 감독의 직책이었다. 회사 일로 자주 진출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의 알바니, 매사추세츠주의 웨스턴(보스턴 스테이크 소속) 및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부장을 그리고 웨스턴, 시카고 스테이크의 윌릿 와드 및 프랑크푸르트에서 감독을 지냈다. 나아가서 캘리포니아주의 다우

니에서 새벽 세미나리반을 가르치고 보스턴 스테이크와 런던 스테이크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는 한편, 보스턴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였다. 후일에 미네소타와 루이지애나 지역의 지역 대표로 봉사하였다.

1975년 어느 날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던 로버트는 비서에게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통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쪽지를 전달받았다. 이사회 도중 참석자가 자리를 뜬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로버트가 전화를 받기 위해 나가자 참석자 모두가 의아해 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로버트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해 주기를 원한다는 롬니 부대관장의 말씀이었다. 후에 그는 영국의 런던 선교부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후 얼마 되지 않아 로버트가 솔트레이크에서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에게서 온 것이었다. 대관장은 로버트에게 다른 선교부로 부임해 줄 수 있겠는지를 물었다.

로버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관장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보내 주십시오.”

그러자 김볼 대관장이 이렇게 질문했다. “이번 봉사 기간은 3년 이상이 될텐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라고 로버트는 쾌히 응하였다.

그러자 김볼 대관장은 그에게 종신 부름인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게 하였다.

헤일즈 장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김볼 대관장님은 제가 선교부장으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총관리 역원 부름을 받아 실망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 개의 선교부를 관리하게 될 겁니다.’”

십이사도 보조로 봉사하던 처음 3년 동안과 그 다음으로 칠십인으로 봉사하는 동안 헤일즈 장로는 대관장단을 위해 27개의 지역 대회를 계획하는 일을 도왔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김볼 대관장님과 십이사도들과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 간증을 하시는 예언자요 선견자며 계시자인 대관장님을 옆에서 지켜보는 일은 실로 멋진 일이었습니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롬니 부대관장의 전화를 받고 약 3년쯤 지나서 헤일즈 장로는 다시 김볼 대관장으로부터 영국 런던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영국 국민과 영국과 선교부를 사랑하였습니다.”라고 헤일즈

장로는 말한다.

헤일즈 장로가 1979년에 선교부장의 봉사를 마치고 가족은 바로 유럽으로 이사하였다. 유럽에서 지역 관리자의 임무를 맡고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와 당시 지역 대표였던 한스 비 링거 장로와 함께 일하였다. 이 세 사람은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하였다. 이들은 동독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동독의 지도자들과 의논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요청을 할 때마다 “건축 재료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축 재료가 확보될 수 있는 곳을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프라이베르그면 좋겠다는 답변이 왔다. 얼마 후에 프라이베르그에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는 허가가 나왔다.

헤일즈 장로가 방문 여행을 할 때면 우연하게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및 폴란드와 같은 나라에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 하지만 헤일즈 장로가 그 지역에 주재하게 되었던 것은 “반드시 좋은 시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시절을 위해서도” 봉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폴란드에서 그가 정부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따금 최루탄이 거리에서 터지고 탱크가 거리를 질주하며 사람들이 거리를 뛰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바르샤바에서 처음으로 주는 침례가 호텔의 수영장에서 행해졌지만 결국 회원들은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들 나라에 사는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심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2,000 명이 넘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간증에 변함없이 충실하였습니다.”

헤일즈 장로가 지역 관리자직에서 해임되자 그의 가족은 유타주 솔트레이크로 다시 이사왔다. 1983년에서 1984년까지 북미 남서 지역의 지역대표를 지냈으며, 1985년에는 관리 감독으로 부름받았다. 관리 감독으로 헤일즈 장로가 맡은 주요 임무는 교회의 외형적인 의식과 세상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일이었다. 여러 해를 교회에서 봉사하고 회사 중역으로 봉직할 경험은 관리 감독의 부름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아들 스티븐은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을 잘 하십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주신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도 위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단 해결되면 그 공을 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분이 무리없이 일을 잘 처리하시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실한 연결편에 매달리다가 잘 안되면 그 편을 떼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삶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즐겨 하시는 방법은 부실한 연결편을 교체하지 않고 부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다음 부실한 연결편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십니다.”

관리 감독단에서 헤일즈 감독의 보좌로 봉사한 바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헤일즈 장로의 아들이 한 평가를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다. “헤일즈 장로님은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 내는 건축사입니다. 그분은 여러해 동안 조용히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십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헤일즈 장로는 스포츠 특히 골프를 즐기고 아내와 더불어 아들과 며느리와 여덟 명의 손자들과 즐겨 어울린다. 베어 호수 부근의 낚은 농가를 산 헤일즈 가족은 아들의 가족과 함께 이따금 주말 휴식을 즐기기도 한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는 손자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자들을 데리고 새 등지를 찾아가고 농장을 방문하며 등산을 하고 체육 행사에 같이 가기도 합니다. 아내는 손자들과 같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건강이 좋지만 헤일즈 장로는 두 차례 심장병을 앓았다. 헤일즈 장로는 생명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시한다. “저는 이 지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일매일 행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감사를 느낍니다.”(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102쪽)

다른 사람들은 헤일즈 장로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이 질문에 며느리인 수잔은 이렇게 말한다. “자애로우신 분이예요. 남을 비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시고는 곧 잊어버리시는 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고 오늘날까지 자신을 고상한 표준으로 키워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 하고 계시답니다. 부모가 그분에게 남겨 주신 표준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표준에 따라 생활하십니다.”

장남인 스티븐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윗쪽 (왼쪽) : 1979년 프랑스 파리 지역 대회에서 앤 엘돈 테너 부대관장,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및 찰스 디디에이 장로와 함께 찍은 사진(왼쪽부터)

윗쪽 (오른쪽) : 1982년 4월 독일의 뮌헨 선교부의 뉴른베르그 지역 대회에서 헤일즈 장로(앞줄의 오른쪽에서 세번째)

아랫쪽 : 1993년에 케냐에 있는 소말리아의 난민촌을 방문하고 있는 헤일즈 장로 (게리포터가 제공한 사진)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대처하려고 하십니다. 저에게 언제나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들인 데이비드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의 가장 훌륭한 품성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 매우 강하신 분이세요. 사업상의 상담을 할 때 그분의 뛰어난 상담 솜씨는 알아 줘야 합니다. 양 당사자와 얘기를 한 다음 당사자들로 하여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달성코자 하는 최종 목표에 관심을 집중케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내인 메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이는 간교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분이세요. 마음이 티없이 깨끗하고 그저 옳은 일만 하려고 하세요.”

같이 일하는 한 동료는 이렇게 평한다. “헤일즈 장로님은 비난과 증상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관리 스타일은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대관장단이 얘기하면 겸손하게 순종을 하는 종이 됩니다.”

“나는 제자라”

1994년 4월 7일 목요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에즈라 탭프트 벤슨 대관장께서는 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및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함께 헤일즈 장로를 사도로 성임하고 성별하는 의식에 참여하였다. 이 의식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였다.

헤일즈 장로는 이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었다. 전투기 조종사 시절 용기를 복돋아 주었던 ‘명예롭게 귀환

하자’라는 모토는 회사 중역과 함께 이사회에 참석 중이던 자신의 아이들과 놀이방에서 놀든 간에 그의 평생의 좌우명으로서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다. 교회 지도자로 봉사하던 자신의 아내와 관계를 굳건히 하긴 그는 그 모토대로 이행했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지상에 온 것은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충실히 순종을 하고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명예롭게 귀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니파이삼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간증만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로 영생을 얻게 할 뜻으로 주께 부름을 받은 자라.’” □



다뉴브의 세미나리

마빈 케이 가드너

사진 촬영 : 브라이언 케이 켈리와 마빈 케이 가드너

여러분은 유럽 중앙에서부터 남동부로 흐르는 그 유명한 다뉴브강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넘실대는 푸른 물결의 강 독을 따라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들에서 들려오는 바이올린의 선율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그 음악 소리가 다뉴브 강변에 접해 있는 형가



리의 두나우이바로스 시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949년 전 이 도시는 두나
펜텔레로 알려진 작은 농촌이었습니다.
당시 소련 지도자 요세프 스탈린은 이
마을을 자기가 꿈꾸던 공산주의 시범
도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도시
를 스탈린바로스("스탈린의 도시")라
개명하고는, 전국에서 수천 명을 데려
와, 높은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공장과 줄줄이 늘어선 회색빛
콘크리트 아파트로 가득 찬 노동자 도
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는 최대한
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내도록 고안되었
습니다. 스탈린의 시범 도시에는 단 하
나의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으며, 도시
의 아름다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
교, 출판, 집회의 자유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그

분의 아들인 구속주에 대하여 알 기회
가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놀랄 만한
변화가 헝가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987
년에 러셀 엠 벨슨 장로가 그 땅 위에
사도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1988년에 교
회는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1989년에는
헝가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1990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부가





개설되었고, 물론경이 1991년에 헝가리어로 출판되었으며, 헝가리어 교회 잡지 창간호가 1993년 6월에 발행되었습니다.

극적인 사건들이 나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놀랄 만한 변화들이 “공산주의 시범 도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스탈린이 죽은 이후 스탈린바로스의 시민들은 그들의 도시를 “두나우이바로스” (“다뉴브의 새도시”)라는 새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주요 산업 중심지이지만 지금 민주주의의 탄생과 더불어 희망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나우이바로스의 시민들은 지금 자유를 흠뻑 누리고 있습니다.

1989년에 두나우이바로스에서 첫번째 말일성도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개종자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도시에는 230 명의 회원과 2 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진리를 찾고서, 그 새로 찾은 선물을 기뻐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말일성도 젊은이들의 활기에 찬 새로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 시대의 성도들처럼

20세의 자포 안드라스는 초기 개종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헝가리인들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 1989년, 열다섯 살 때 침례받은 그는 지금 제2지부의 세미나리 교사이며,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드라스가 이날 저녁 세미나리로 오는 반원들을 환영하는 가운데 13명의 학생들이 손때묻은 물론경이 가득 놓인 테이블 주변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한때 스탈린의 이름으로 불리웠던 도시에서, 바찌 캘로리 지부장(위)이 세미나리반 학생들과 복음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페르저 이디코(왼쪽)는 최근 개종자이다. 호베스 아틸라(아래)는 그의 부모님을 침례주었다. 오른쪽: 퍼 마리아와 베레케이 크리스티아와 보조 브리기타는 세미나리를 통하여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난 후 한 청년이 개회 기도를 합니다.

이곳에는 교회가 극히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최근의 개종자입니다. 이 학생들 중 일곱 명이 회원이 된 지 2년이 되었고 다섯 명은 겨우 1년이 되었습니다. 세 명은 자신의 가족에서 유일한 회원이고 네 명은 부모를 교회로 모셔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활이 다소 서로서로 얽혀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세미나리 반원에게서 복음을 소개받아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악의없는 장난과 웃음소리와 더불어 책상 주변에는 강한 사랑의 느낌과 일치감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리 학생들은 복음의 새로움과 아름다움, 즉 스스로 그 모든 복음의 진실성을 발견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험, 훌륭하고 고무적이며 온 세계를 채우기 위해 운명지어진 그 어떤 것의 시작에 있다는 느낌 등과 같이 요셉 스미스 시대의 성도들이 틀림없이 느꼈을 영과 똑같은 영을 느끼고 있습니다!

..... 새로 발견한 선물

이 세미나리 반에는 브리기타라는 이름을 가진 16세의 청년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반의 세레스 브리기타로부터 처음 교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라고 보조 브리기타는 말합니다.

“저는 성찬식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친구와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회가 다가왔을 때, 저는 당연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교회에 속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침례 받았습니다.” 브리기타가 침례 받은 지 두 달 후에 브리



기타의 어머니와 15살 된 남동생인 라즐로가 침례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세 사람 모두가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처음에 저는 제 친구만이 침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가족이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놀랐습니다.”라고 같은 반 친구인 세레스 브리기타는 말합니다.

말일성도인 같은 반 친구가 16세인 호베스 아틸라를 성찬식에 초대했을 때 아틸라는 자신이 본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제 친구로부터 교회가 가족에 중점을 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아틸라는 침례 받았습니다.

3 개월 후에 그의 아버지가 선교사 토론을 듣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아버지께서 교회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교회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습니다. 세미나리에서 배운 지식이 아버지께 성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

버지께서 담배를 피우시고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서 침례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의 생활로부터 멀리할 수 있으셨는지를 보았을 때 놀랐습니다. 2 개월 후에 저는 아버지께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와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어머니께서 보시더니, 어머니 역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침례를 베푼 지 3 개월 후에 저는 어머니께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의 온 가족이 교회에 가서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지지함

이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개종할 때, 그들은 복음 안에 강하게 남아 있기 위하여 서로 돕습니다. 지난 여름, 19세의 클레인 킹가와 다른 교회의 젊은 회원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 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변에는 교회 회



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둘 뿐이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오면, 우리는 항상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몬경을 읽고, 두나우이바로스의 교회 친구들로부터 오는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도와주었습니다.” 둘 다 18살인 발라토니 가버와 볼소스 피터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는 동안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천한 말을 하고 또 다른 합당하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가버는 말합니다.

어느 날 오후, 16세의 베러케이 크리스티나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간증과 성신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날은 성신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그 느낌을 무척 받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음악을 듣고 물몬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노력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여전히 성신의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친구 세레스 브리기타를 찾아가서 저와 함께 걷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제가 친구에게 간증을 했고, 친구도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의 간증을 나누면서 두세 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신을 느꼈고 저의 간증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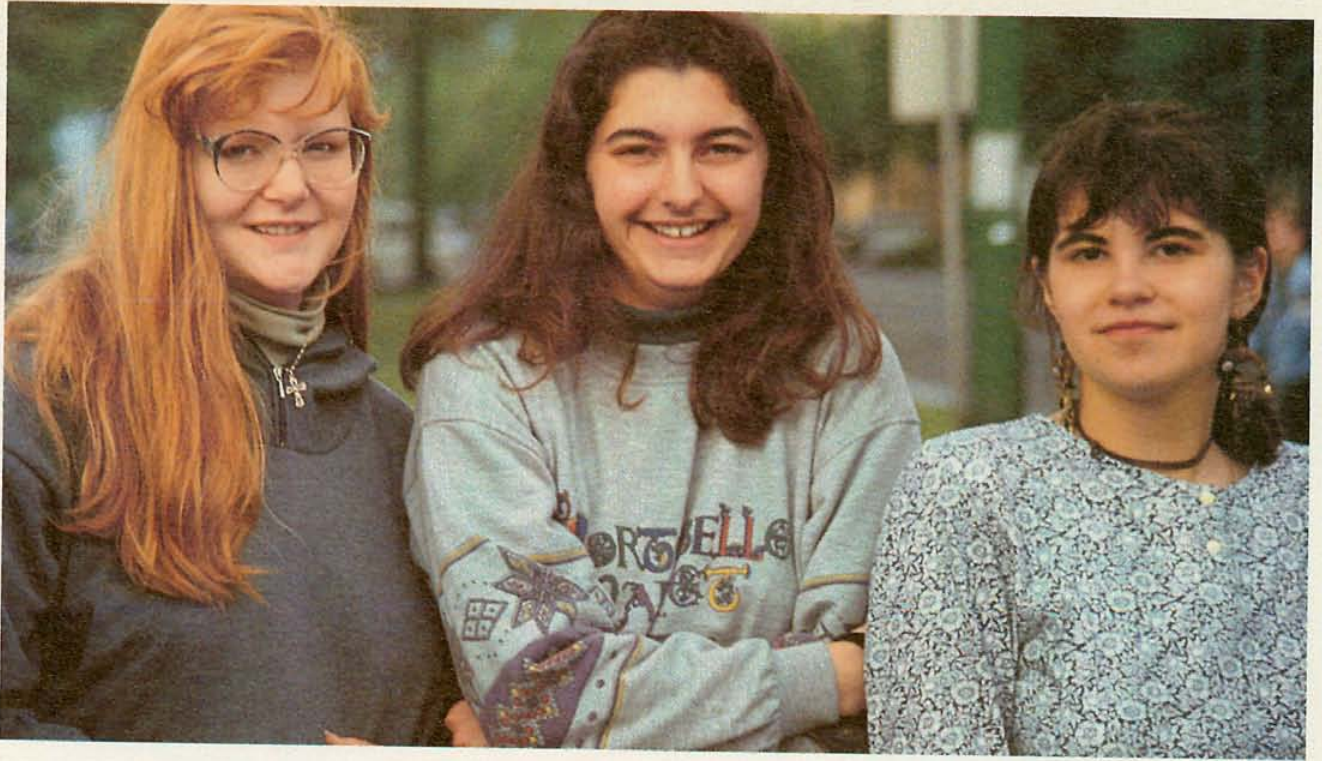
“아무도 잘 수 없었습니다.”

헝가리에서의 교회의 짧은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은 1993년 여름 동안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청소년 대회였습니다. 거의 200 명의 말일성도 청년 청년

가 헝가리 전역으로부터 왔습니다. 재능 발표, 스포츠 활동 및 워크숍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의 절정은 4시간 동안 진행된 간증 모임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증이 훌륭했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18세의 발키 니콜레타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울었고 성신이 그곳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 후, 어느 누구도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회를 마치는 폐회 기도를 하고 대회가 끝났다는 아쉬움과 섭섭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나 가깝게 느꼈으므로 두나우이바로스로 돌아가는 도중 내내 버스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성신이 함께 했습니다.”

세미나리는 이러한 간증을 쌓고 하나로 단합하는 경험을 위한 정기적인 기회를 줍니다. “제가 세미나리가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6세의 볼소스 이바는 말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세미나리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물몬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둘째, 세미나리는 함께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지부의 청소년들은 강하고 서로서로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미나리 프로그램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증을 서로 나누고 또,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약 일주일 전 우리는 세미나리 반에서 간증회를 가졌



위쪽의 소모디 스잔나, 발키 니콜레타, 클레인 킹카 그리고 아래쪽의 볼소스 에바와 같은 헝가리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복음의 훌륭한 열매를 발견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복음을 나눕니다. 왼쪽에 있는 20세의 자포 안드라는 세미나리 교사입니다.

있는데, 그때 우리는 제가 청소년 대회에서 느꼈던 영과 똑같은 매우 강한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증은 저에게 매우 강한 힘을 줍니다.”

“그 성전에는
지봉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1994년 4월과 8월에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받기 위해 독일 프라이베르그 성전으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헝가리 전역으로부터 온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22 시간이나 걸리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한 가지 임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임무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한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아름다웠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리 침례를 해드린 분이 누구인지 언제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영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 주기를 기다려 왔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그런 훌륭한 느낌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라고 18세의 소모디 스잔나가 말합니다.

“제가 성전 안에 있었을 때 성전에 지봉이 없다는 즉 하늘과 직접 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18세의 볼소스 피터가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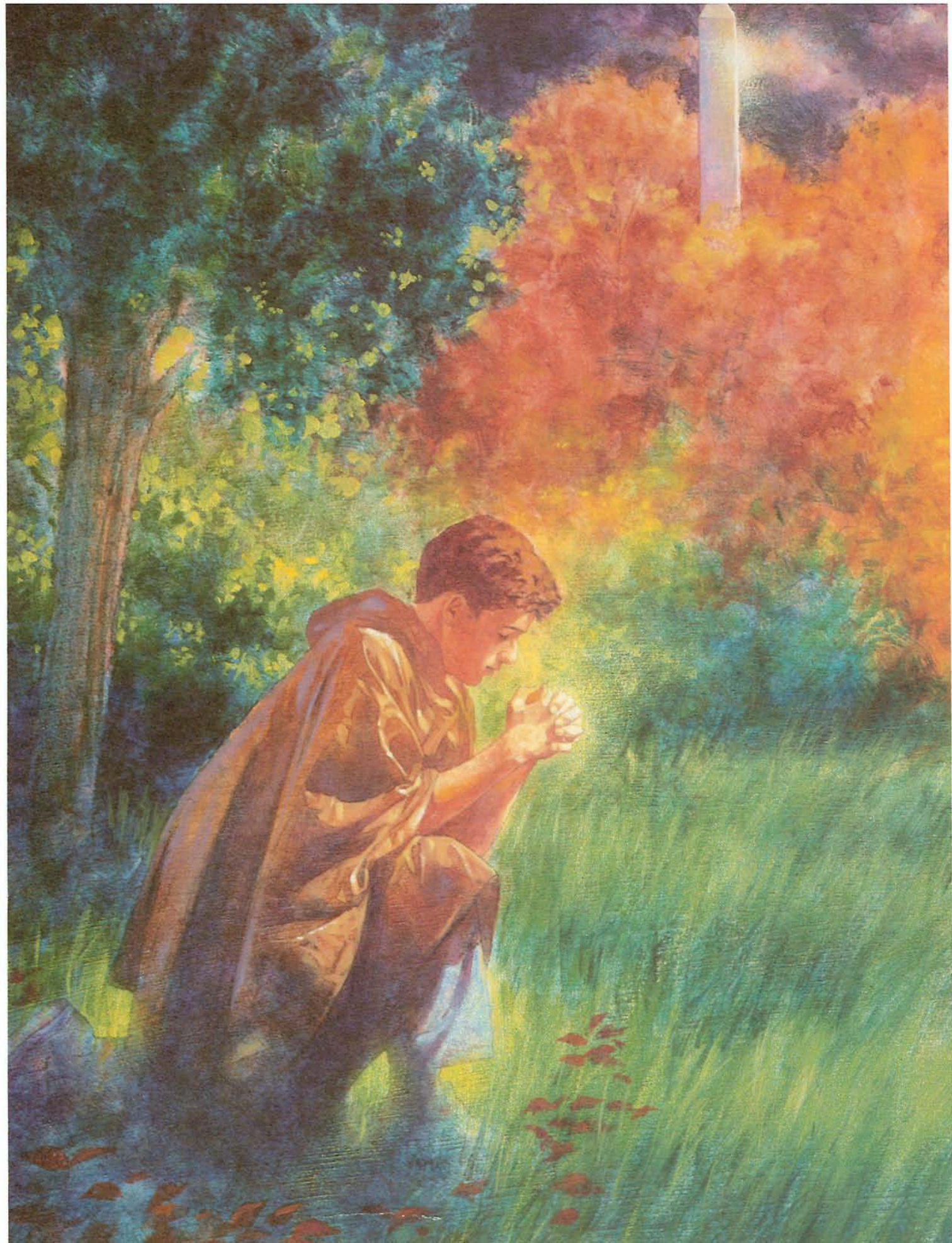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새로 발견한 선물을 향유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훌륭한 느낌은 없습니다.”라고 16세의 베레케이 크리스티나는 말합니다.

다뉴브강변에 위치한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이 헝가리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는 시도해 봐야 했습니다.

데이비드 허셀

우리는 예언자가 태어난 곳인 버몬트 웨튼의 요셉 스미스 기념비 앞의 축축한 잔디 위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비에 젖지 않으려고 우비를 들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우리는 빗소리 가운데 지도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숲 속에서 잠시 동안 혼자 명상하고 자기 평가를 하는 마지막 활동을 끝낼 것입니다.

그 생각은 정말로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앞서 한 연사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13세의 데이비드는 구슬치기 챔피언이었습니다. 축복이 끝난 후에, 그 축복사는 데이비드에게 구슬치기하는 것보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구슬을 버리고” 내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결정의 대부분은 교회가 참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숲 속으로 들어갔을 때, 세상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고 우비를 몸에 두른 채, 저는 인적이 없는 외딴 곳을 발견하고 마음 속으로 찬송가를 몇 곡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잠시 동안 경전을 읽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저는 무릎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흥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초조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미 저는 금식 간증 모임에서 그리고 물론경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었을 때 영을 느낀 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곳 숲 속에서 무릎꿇고 큰소리로 기도했는데 비에 흠뻑 젖기만 하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저는 시도해 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흠뻑 젖은 풀 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기도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엿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낮은 목소리로 제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속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 아주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끝내고 무릎을 꿇은 채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이미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틀림없이 제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평화와 기쁨으로 저를 감싸주는 영의 따뜻하고 평온한 느낌으로 다시 왔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저는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리와 개인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의 간증이 쌓여졌고 교훈에 교훈이 더하여졌지만, 너무나도 천천히 와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제 인생에서 될 중요한 일들을 제쳐두고 영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안심이 되었고, 너무나 만족했으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계속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시 숙이고서, 비록 제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

독자를 위한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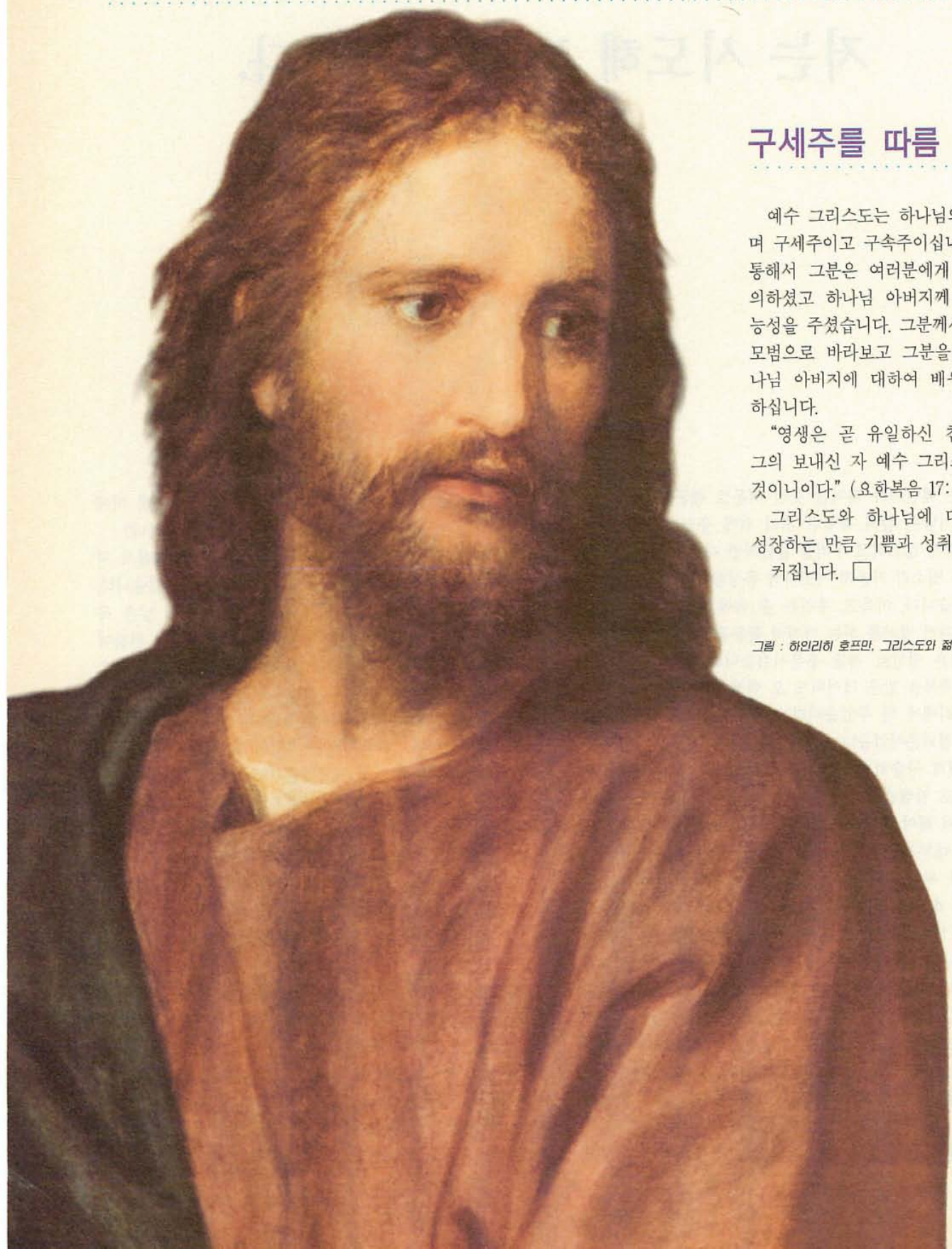
구세주를 따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고 구속주이십니다. 속죄를 통해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제의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모범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배우라고 권고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요한복음 17: 3)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기쁨과 성취도 그 만큼 커집니다. □

그림 :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젊은 부지 관원



보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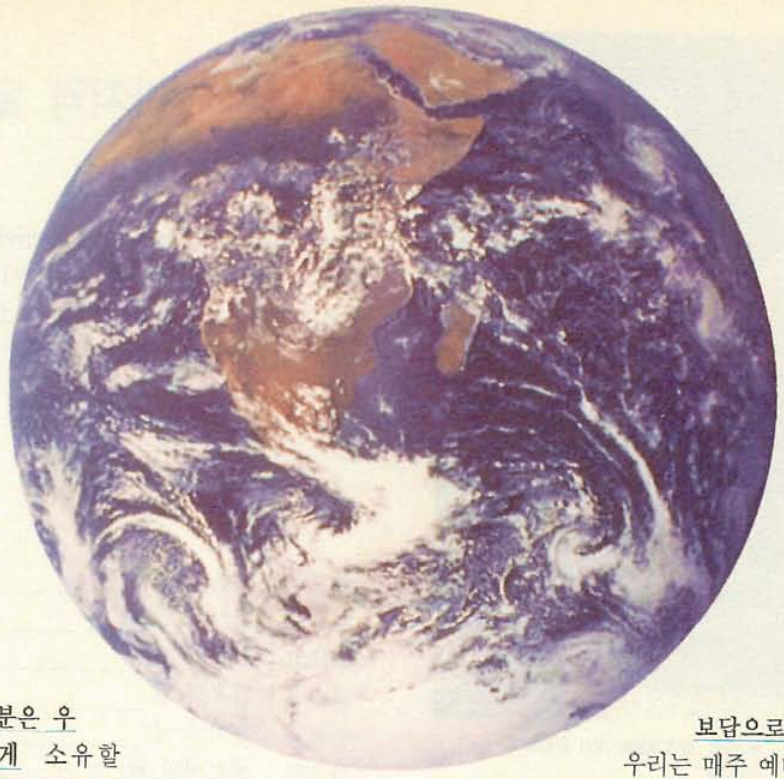
우리에 대한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많은 은사와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2:3 참조) 우리는 경건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주셨습니다.

보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존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보답으로, 우리는 가족을 지지하고 조화와 친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을 주셨습니다.

보답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매일 감사하고, 충실하게 십일조를 바치며,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전을 주셨습니다.

보답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교리와 성약 84:85 참조)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현대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보답으로, 우리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분들의 지시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성신을 주셨습니다.

보답으로, 우리는 고요하고 조그마한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보답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보답으로,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양을 쌓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권, 즉 성스러운 책임을 주셨습니다.

보답으로, 우리는 신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매우 성스럽고 우리를 구원하는 의식을 집행하도록 그분의 집을 개방해 두십니다.

보답으로, 우리는 존경심을 갖고 성전을 대하고, 자주 방문하며, 성전 사업이 행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죄, 즉 그분의 가장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세주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합당하다면 우리가 승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답으로, 우리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으며 끝까지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



그림 : 델 파슨. 예루살렘에 개선 입성을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 동안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의 사복 음서의 부활절 이야기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28; 마가복음 11:12~16, 14~16, 누가복음 22~24 및 요한복음 18~20) 각 날의 옆 공간에 그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차례차례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 기름 부음의 날 _____

일요일 : 인기의 날 _____

월요일 : 권위의 날 _____

화요일 : 갈등의 날 _____

수요일 : 휴식의 날 _____

목요일 : 동료애의 날 _____

1. 온 땅에 어두움이 세 시간 동안 임함.
2. 동이 틀 무렵에 가야바와 유대인의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비난함.
3.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4. 예수님이 돌아가심.
5.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희롱함.
6.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7. 파수꾼이 무덤을 지킴.
8.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왕에게 보냄.
9.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심.
10.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

심.

11.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갈보리로 지고 가시는 것을 도움.

12. 예수님이 승리로 예루살렘에 개선의 입성을 하심.

13. 아마도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그분의 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쉬심.

14. 예수님이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에 묻히심.

15. 예수님이 새벽 6시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짐.

16.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

17.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

18.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음.

19. 예수님이 성전과 감람산에서 가르치심.

20.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넘겨 줌.

21. 한밤중쯤에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함. □

11 : 10810 : 1 : 10810
 : 11 10 7 1 11 11 5 102 8 11 2 : 10810
 : 12 91 8 : 10810
 : 11 : 10810 : 10 : 10810
 : 9 : 10810 : 12 : 10810 : 3 : 10810
 : 10810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

“만물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나니.” (모세서 6:63) 경전과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아 맞춰 보십시오.

해답 :

1. 침례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로마서 6:3~4)
2. 성찬 빵과 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들 때, 우리는 침례식에서 그분과 맺은 성약을 또한 새롭게 합니다. (모로나이사서 4:3; 5:2)
3.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를 병 고치기 위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놋뿔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요한복음 3:14~15; 헬라맨서 8:14~15; 엘마서 33:19~22)
4. 요나가 “큰 물고기”의 배에서 보낸 삼 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

- 의 삼 일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요나서 1:17; 마가복음 9:31)
5.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모세 율법의 일부로서 이스라엘인들이 바친 제물인 가축의 흠없는 첫새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5; 모세서 5:7)
6.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신 선물인 만나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8:3; 요한복음 6:35)
7. 많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반석 [또는 기초]”으로서 반석과 돌에 비유합니다. 모든 건물은 모퉁이 돌이 있으며,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20)
8. 리아호나가 리하이와 그의 가족을

-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니파이일서 16:10, 26~29)
9.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 중 첫번째 날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그분께 헌납합니다. (요한복음 20:1; 교리와 성약 59:9~10)
10. 빛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세상의 빛”임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9:5)
11. 물은 그리스도가 “영생으로 솟아 오르는” 생명수와 같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교리와 성약 63:23)
12. 그리스도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1~13) □

제193면은 : 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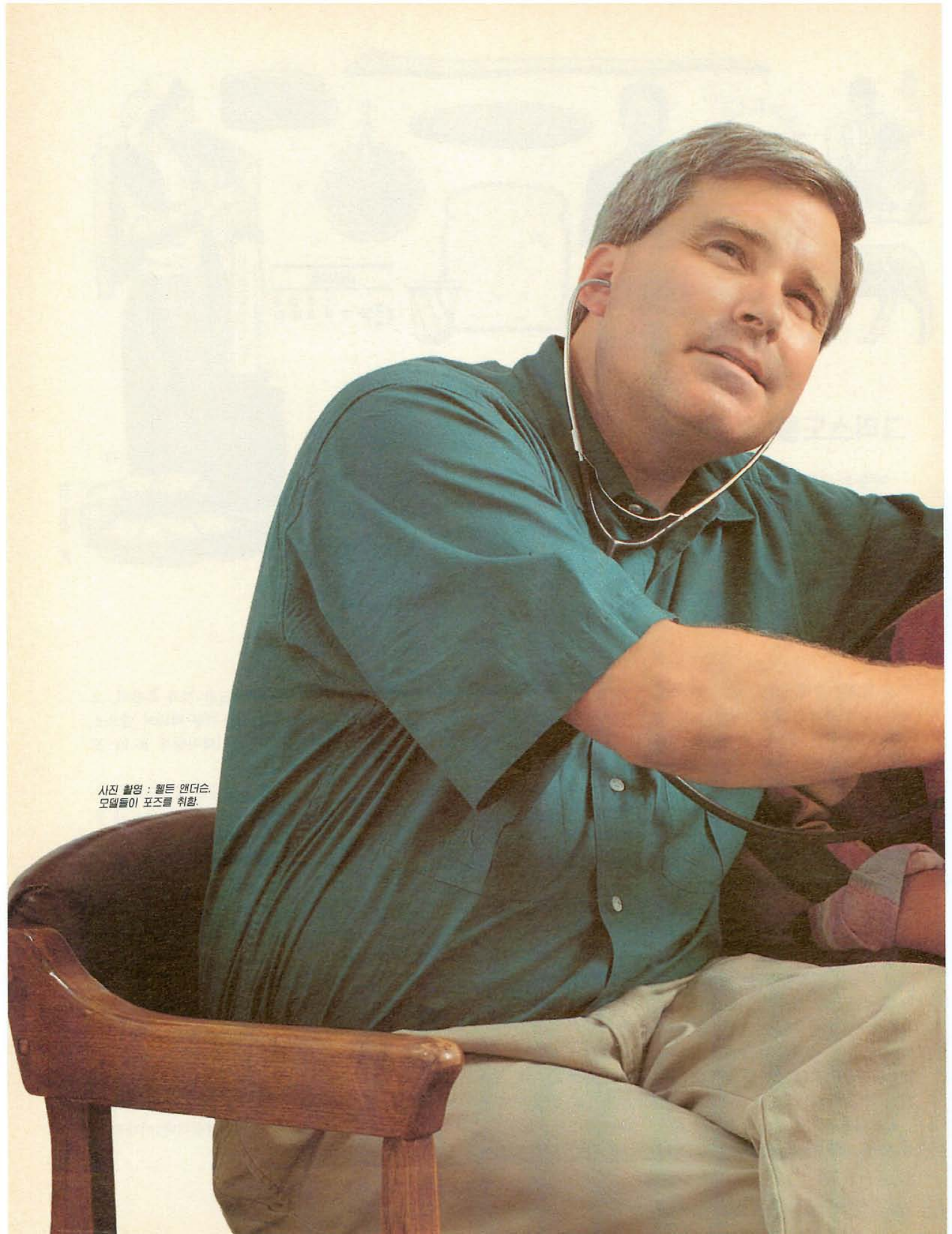


사진 촬영 : 윌트 앤더슨.
모델들이 포즈를 취함.

듣는 귀

저는 제가 여러 해 동안 훈계하면서 알았던 것보다 듣는 30 분 동안에 제 아들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테드 힌드매쉬

제 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마룻바닥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좌절감과 씩름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마음으로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제 아들도 저만큼 진지하게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둘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했던 방법대로 다시 그를 껴안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가 저의 사랑과 염려를 알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6세의 제 아들은 특별히 아버지로부터의 애정의 표현에 당황하였습니다.

“결코 저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아들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아. 왜 안돼,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이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불안정했던 저의 청소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라고 아들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것들, 즉 그에게 가르치기를 몹시 원하는 교훈들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태도는 편파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늙지 않았으며 제가 아들의 입장이었을 때가 그렇게 오래 전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번 나는 십대였을 때 겪었던 내 자신의 좌절감에 대하여 아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던가? 얼마나 많은 좋은 성구들을 그에게 인용



했던가? 얼마나 자주 아들을 앉혀 놓고 내 자신의 경험으로 부터 훌륭하고 올바른 조언을 해주었던가?

만약 아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경청하려고만 한다면, 제가 말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저를 이해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일어서서 나가려 했을 때,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애야, 도대체 왜 들으려 하지 않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논쟁하는 동안 처음으로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저를 놀라게 했지만 그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는 일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왜 제 말을 듣지 않으시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들의 질문이 놀라웠고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설령 제가 아들에게 듣기만 하라고 했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어쨌든 저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갑자기 저는 제 아들이 한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들어야만 했을 때, 저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설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저의 염려는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그 염려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아들에게 주고자 했던 지혜를 자랑스러워 했지만, 저는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제 아들에게 제 경험과 생각이 아들의 경험과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둔감함을 깨닫고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제 아들의 말만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하기보다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경청은 마음과 가슴을 열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느낌과 문제점과 성공에 대하여 자유롭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느낄 때, 부모는 자녀와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벤 비 벵크스,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29쪽)라고 주님의 기쁨 부음 받은

자들이 부모들에게 권고해 왔던 것에도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계속해서 저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아들을 바라본다면, 제가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의 속삭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귀와 가슴을 열고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들의 견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경청하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우리의 품 속에 안길 수 없을 만큼 너무 성장했을 때, 경청은 자녀에게 우리의 애정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입니다. 들음으로써 우리는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속고와 회개 후에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야기할 시간이 있지?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싶구나.”라고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은 잘 알겠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 보고 싶구나. 네가 이야기하고 내가 들으면 어떨겠니? 믿지 않겠지만, 난 네가 부탁할 때만 충고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보였던 표정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환영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꾸어서 저는 정말로 경청했습니다. 얼마 후에 저의 말이 나오려는 것을 억제해야 했지만, 저는 제가 여러 해 동안 혼계하면서 알았던 것보다 듣는 30분 동안에 제 아들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는 가슴과 가슴으로 하는 많은 대화의 시초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하여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전에 대화할 때 빠져있던 함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꺼이 대화하려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디모데전서 6:18-19 참조)의 일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귀와 가슴으로 듣는 것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특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항상 필수적인 것입니다. □



에케 호모, 안토니오 시세리; 스키타/이브 리소스, 뉴욕

대제사장들에 의해 선동죄로 고소되어 유대 지방의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불러 나온 예수님.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다." 예수님에게 부당하게 선고하는 것이 두려웠던 빌라도는 그분을 유대인들의 손에 맡겼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앞으로 나오신 예수님. 군병들이 그를 조롱함. 빌라도가 "바로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함. (요한복음 19:1~5 참조)



한 때 요세프 스탈린의 이름이 도처에 나무끼던 헝가리의 도시에서 이들 세미나리 학생들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다. 그들은 그 새로 찾은 선물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있다.(34쪽, "다뉴브의 세미나리" 참조)